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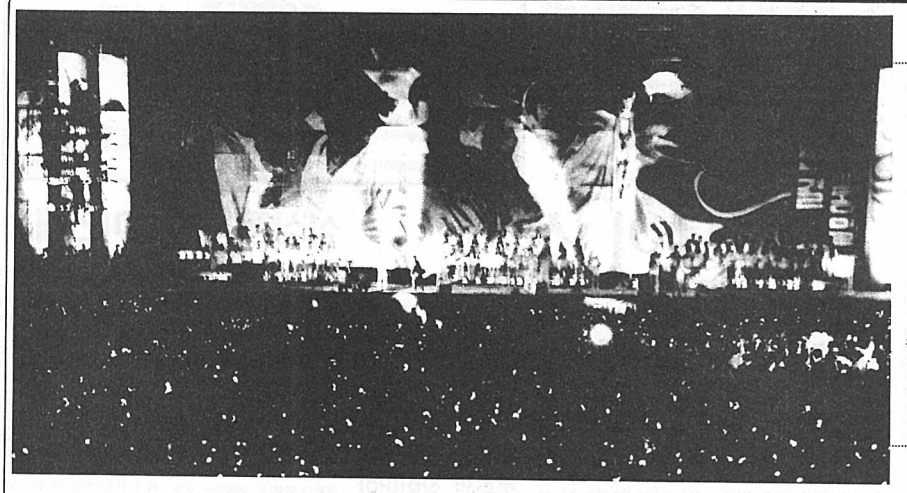
발 행 인 안 병 만
편 집 인 겸 주 간 강 덕 수
편 집 장 김 남 중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 대 학 보 ☎961-4152, 961-4183(FAX겸용)
학생기자실 ☎959-6574,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 쇄 인 김 상 영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31호 1994년 5월 31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1



제2기 한총련 출범식이 광주 조선대에서 열렸다. 사진은 28일(토) 출범식에 앞서 27일(금) 밤에 열린 전야제 장면.

94년 총좌표 그린 한총련 출범식

조선대에서 5만여명 모인 가운데 2기 출범

김영삼정권 타도 입장표명 명확히 해

민족공동의 이익 · 존엄 위한 민족대학 건설

'불패의 한길 달려온 자랑찬 백만청년아—' 지난 27일 오후, 1천대도 훨씬 넘는 관광버스들이 조선대로 향했다. 버스 안은 아직 음도, 가사도 제대로 몰라 커졌다, 작아졌다하는 목소리로 새로 만들어진 '한총련 진군가'를 부르면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10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는 강원도 학생들부터 30분동안 비행기를 타고 온 제주도 학생들까지 전국에서 모여든 7만여명으로 조선대는 3일동안 거대한 해방구로 변했다.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거센 상황에서 출범식을 사수하기 위해 계속 쫓아다니는 선봉대들의 모습부터 백만학도를 중군으로 만들겠다는 춤한마당, 대학생 영화제, 각 부문계열조직 행사, 대운동장에 설치된 본부대에서 진행된 전야제 출범식, 갖가지 기획 대지보, 그리고 부엊보다도 아부대서나 자고, 노래하고, 춤추는 학생들로 조선대는 72시간 동안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출범식 3일동안 학생들이 공유했던 중심 내용은 △미국 반대, 김영삼 타도 △수업개방 저지 △통일조국 건설 △민족대학 건설 등으로 압축될 수 있는 한총련의 투쟁과제와 '1백만의 대표제 한총련'에 대한 사랑이었다. 노래를 하다가도 춤을 추다가도 외쳐치는 이 구호들은 왜 그들이 출범식에 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한총련 1기와 2기의 기조에서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김영삼정권 타도의 입장을 표방했다는 것, 학원자주화 투쟁(학자투)에 있어서 그 미래상인 '민족대학'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김영삼정권 타도와 미국반대 투쟁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한총련 정책위원장 박문수군은 "현정권 태동부터 3당 야합의 산물이라는 한계를 가졌으나 지난해는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민정부라는 이유로 개혁적인 면은 지지하면서 투고보자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쌀 수입개방, 북핵문제를 거치면서 현정권의 친미매국성과 반통일성, 개혁의 의지가 없음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올해는 미국의 본질을 잘 알려낼 수 있는 계기가 많아 반미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출범식장에서 '미국반대 김영삼 타도'는 다양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선전되었다. 올해 가장 정부의 탄압을 많이 받았던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에서 준비한 문예행사와 대지보, 교육문제를 이야기하는 대자보에서도, 성조기를 밟에 두른 허수아비에도 분노는 축장으로 잡혀 있었다. 출범식 마지막에 대형 성조기를 불태워 없애자 나타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투쟁의 애국대오 한총련'이란 글씨가 훨훨 타오르는 것으로 한총련의 투쟁의지는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학생들은 약간씩 차별성있는 반응을 보인다. "김영삼정권 타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권 반대를 통해 우리의 요구들을 일정정도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유지연, 부산여대 체육학과 3), "두말할 여지가 없다. 현정권은 3당통합 때부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개혁의지가 있다하더라도 김영삼은 개혁을 할 능력이 없다"(이창우, 전남대 경제학과 3), "어느정도 공감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김정권에 대해 다 잘안다는 판단으로 투쟁을 이끌어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현정권의 본질을 알려내는 작업을 해야만 많은 학우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갖게 될 것이다"(박정록,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3), 이 밖에도 학원자주화 부분의 연대투쟁을 잘 조직화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많은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어, 학자투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는 다양한데 한총련이 자주·민주·통일 투쟁과 학자투를 잘 조화시키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총련 2기가 표방한 '민족대학'의 이념은 학자투의 사상적인 측면을 정리해간다는 의의와 함께 현실적인 투쟁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닌다.

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최진선(본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군은 출범선언문에서 "통일조국에 대비하여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족인재 양성을 위해 민족대학 건설에 총력을 다할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출범식에서 만나본 학생들은 대부분 민족대학의 구체적인 상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한다. 학원자주화에 대한 기획대지보 거리에 '학우들이 생각하는 민족대학은'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도 함께 전시가 되었다. 학생들이 쓴 내용은 등록금 안내고 다니는 대학, 모든 이가 운동에 공감하는 대학,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높혀주는 대학, 대학생들의 조직이 튼튼해질 수 있는 대학, 식민의 찌꺼기가 없는 대학 등이다.

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정책실에 있는 김준하군은 민족대학에 대해 "지금처럼 취업을 위한 기능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민족대학은 교과과정에서 서구자본주의적이고 식민지 지배도구로 이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학문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어 진보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인적요소에서는 교수·학생·직원이 단결을 이루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학원운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김군은 "올해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학자투인 교육제정 확보투쟁은 민족대학 건설의 물적토대를 다진다는 의미를 함께 갖는 것이고, 교육시장개방 반대투쟁도 무분별한 외래학문의 수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족대학 건설을 위한 다양한 투쟁들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며 하반기 학자투는 교육시장개방저지투쟁을 위시한 반미·반정부 투쟁을 총화하고 앞으로 투쟁을 백만의 단결로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 한총련 출범식은 5·18 광주항쟁의 성지 도청앞에서 '광주시민 한마당'을 치뤄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조선대에서 3일 동안 뿜어냈던 열기는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 저지투쟁'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을 중심으로 북핵 일관타결·평화협정체결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조국통일투쟁, 교육제정확보투쟁으로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본보 정지혜 기자>

민족자주 쟁취, 민족단결 원칙 고수

통일방안 합의투쟁으로 통일의 대중적 공감대 형성할 터

제5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양동훈(조선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의 조국통일운동 원칙은

=양대 원칙이 존재한다. 민족자주 쟁취문제와 민족대단결 원칙을 통해 사업해 나갈 것이다.

—올해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설정된 투쟁방향은

=반미, 반전, 반핵과 평화수호투쟁과 연방제 통일방안을 대국민적으로 합의해 들어가는 것 두가지다. 미국에 의한 북한의 핵압력을 분쇄하기 위해 핵문제 일괄해결 촉구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 95년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 통일방안 합의투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실현이다. 북한은 미국에게 핵사찰 수용의 뜻을 밝힌지 오래이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포기한다는 것을 내걸고 있다. 미국의 핵포기 선언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핵위협을 없앨수 있다.

—연방제 합의투쟁의 구체적인 형태는?

=일단 단위 학생회까지 통일방안에 대한 토론을 조직화할 것이다. 7~8월에는 대중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단위 심포지엄도 개최할 것이다.

—민족대단결의 부분은

=현재 남북이 문화·사상적으로 많은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민족대단결은 민족자주 실현의 전제조건이다. 이는 남북의 대화창구가 개방되는 문제와 함께 계속적인 만남이 담보될 수 있도록 회의체계가 구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북한 바로알기운동도 진행할 것이다.

—5기 조통위가 이전과 차별성이 있다면

=통일투쟁이 보다 광범위한 계급, 계층으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봉투쟁에서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주동적으로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개척해 나갈 것이다. 88년이나 89년 올림픽 공동개최투쟁과 세계청년축전참가 투쟁처럼 주어진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공간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을 대중화시킬 방안은

=92년 정권의 폭압적 탄압속에서 건설되었던 범청학련이기에 청년학생의 통일운동조직으로 아직 자리매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범청학련건설 취지처럼 3지 연대 원칙을 고수하며 대중화에 힘쓸 것이다. 모든 통일운동을 범청학련을 통해 하여, 대중적으로 8·15 범청학련 총회를 성사 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 부터 각 단위 학생회까지 통일방안 합의 부분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범청학련 이름으로 공포할 것이다.

—범청학련이 올해 남과 북, 해외가 함께하는 사업은

=청년학생 통일대축전을 개최할 것이다. 6월 23일 실무회담을 관문점에서 할 예정이다. 또한 8·15 범청학련 총회 개최를 위해 통일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빈의자

청춘송가

▲이시대 올바른 청년의 삶이란 무엇인가.

'청춘의 삶'을 사는 데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 거액의 돈을 길거리에 뿌리며 사치스럽게 살다 못해 1백억 이상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칼로 50여군데를 찔러 부모님을 태운 청년,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현 사회질서에 충실하고자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또한 편치않은 숙소에다 잠도 한두시간 밖에 자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 같은 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갈구하려는 모습이나 최근 '수입개방 강요하는 미국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아메리칸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다 구속수감된 본교의 청춘도 있다.

▲'양치기 소년'처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청춘'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

자기의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늑대가 왔다"라고 소리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소년의 모습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비참한 말로(末路)를 보게 된다.

단순히 유교적인 결백성이 아닌 시대정신에 기초한 '정직함'에 자신의 몸뚱이를 헌신적으로 바치는 자가 이시대가 요구하는, 아니 전 시대에 걸쳐 요구되는 청년의 삶일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조선과 일본은 뿌리가 같다'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포장해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내준 을사오적의 자세는 시대의 요구가 아니었다. 그당시 정직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은 '분노와 저항'이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저항을 요구했고 바로 저항의 역사에 청춘은 선두주자였다. 청춘의 특성이 실천속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던 것이다. '대학생들은 너무 과격해' 등의 말이 아직도 떠돌아다니지만 이제는 많은 기성세대들이 '진취적인 청년의 기상을 따라 배우자/'는 기치를 치켜들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들어 '청춘의 삶'을 주제로한 노래가 많이 작사·작곡되고 있다.

'아아~나는아 한평생을 청춘으로 살겠네' '내가 흘들어간다는 것이 제 한몸의 평안을 위해 세상에 적당히 길드는 거라면 내 결코 흘들지 않겠다~'

▲여러 삶중에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한다. 하지만 청춘들이 염두해 둬야할 것은 있다.

고문받한 독사나 김남주 시인처럼 장례식장을 눈물 바다로 만들고 죽은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삶을 살것인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처럼 후세에 본받지 말아야 할 역사의 죄인으로 사라져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헤명해야 하는 것이다.

<김남중>

'인류평화', '남북화해' 깃발 휘날려

'인류평화와 남북화해를 위한 '94 세계민속 예술축전'이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지난 25일(수)부터 이틀간 오후 3시, 7시에 총4회의 공연이 진행돼, 4천여명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안병만 총장, 김민곤 용인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중국, 폴란드 대사관 관계자 등의 내외귀빈이 관람했다.
사진은 루마니아어과 학생들의 민속춤 공연 모습.

<사진부>

사 설

세계화와 외대

국제화, 개방화라는 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화, 개방화는 관념적 구호가 아니라 실천적 철학이다.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듯이, 국제화, 개방화를 위해서도 튼튼한 하부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 하부구조는 무엇인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아침인사를 하니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반문하는 사람에게 개방화는 먼 이야기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부터 열린 마음이 있어야 개방화는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도 서로 통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국제화, 개방화가 가능할까? 더구나 국제무대를 향한 개방화에서는 말이 우선 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외국어대학교가 걸머진 사명과 책임은 국가적인 것이었다.

지나간 40년 동안 외대가 작은 규모와 적은 졸업생 수에 비해서 수출드라이브라는 국가적 총력전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88년에 올림픽이 개최되리라는 것을 누가 예상했겠는가? 만일 15년 전에 통역대학원이 개설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러나 거기에는 외대가 있었다.

세계무역기구(WTO)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서 무한경쟁의 경주에 뛰어들어야 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대학은 각오와 사명을 새로이 다져야 한다.

먼저 언어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공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학생들이 쉽게 졸업할 수 있는 풍토가 불식되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화 시대의 공용어인 영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외국어 전공자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포함한 비외국어 전공계열에서도 영어회화는 최소한의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

개방화의 물결을 외국어 구사능력만 가지고 해쳐나갈 수는 없다. 외국어 구사능력은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바탕으로 성숙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지역학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지역학이란 한 나라의 정치, 경제에 관한 지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 경제란 한 사람이 입은 겉옷과 같은 것이다. 겉옷은 언제든 바꿔입을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나라의 집단적 정신세계를 심층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사 1, 2학년에서는 언어구사능력을 집중적으로 습득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학생만 3, 4학년에서 문학, 언어학, 역사, 정치, 사상, 경제, 지리, 과학, 예술에 접근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원어 또는 원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세계를 향한 국제화 교육을 외대 혼자서 책임질 수는 없다. 무한 경쟁 시대에는 총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적 필요성이 증대될수록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40년간 국제화 교육을 책임져 온 외국어대학교를 이제는 국책지원대학으로 특별히 지정하여 적어도 몇년간은 국가예산을 계속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는 언어로서 통한다. 그 언어는 바로 외국어대학교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외대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며, 국가적 외국학 교육 센터이다. 외대에서 가르치고 일하는 교수나 직원은 국가적 임무의 수행자이며, 학생들은 국가적 인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외대인은 모두 우리 자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삼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세계화를 위해 외대가 걸머진 책임을 공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가정문제를 생각하며

수용이 아닌 양육으로

94년은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다. 그리고 현재의 5월도 가정의 달이다. 축소화 된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의해 이미 서구에서는 하나의 정형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가정해체의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우리 주변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맑스가 1백여년 전 자본론에서 예견한 프롤레타리아트 가정의 붕괴, 사회주의 하에서의 자연스러운 가족해체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다.

결혼한 7쌍 중 1쌍이 이혼한다며, 또한 결혼에서 파경에 이르는 기간이 가장 짧다며 각 매스컴에서 호들갑을 떨어도 그 수치는 아직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가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에서 갑자기 가정의 위기, 무책임한 부모 등으로 전통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개혁 요구들에 대한 곱지 않은 보수적인 시선으로 보여준다. 즉 한국사회에서 가족해체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전통적 가치관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거나 가족간의 유대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 처방을 제시하지만 그 이면에 덮힌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보사부의 94년도 상반기 보호아동 발생현황 발표를 보면 경북 101명, 대전 75명 경기도 53명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두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부분의 원인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부모의 무책임함, 부모의 가출,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으로 꼽히고 있지만 우리는 그이면에 일인당 GNP 7천 7달러를 달성했다고 선전하는 정부의 선전속에, 그리고 모두가 떠들어대는 신세대의 왜색적인 모습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분배기조의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바로 그 본질적인 원인이었음을 알고 있다.

버리는 부모와 버려지는 아이들…. 간혹 술기운에 혹은 깊은 밤 죄책감에 다시 아동보호소를 찾아와 눈물로 밤을 지새고 가는 부모도 많다고 한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간의 정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끊기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더라도 버렸다는 죄책감과 버려졌다는 충격은 그들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돼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륜'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사회에 분노한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분노할 만한 것은 사회복지 행정이다. 5백 50원이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재정지원과 보육사 1인당 담당 아동수 13명으로 알 수 있는 보호수준의 열악함이다. 이것은 분명 양육이 아닌 수용에 불과하다 사회기조는 각 개인 개인의 삶에 질곡이 되거나 장애가 되어선 안된다. 그것을 깨어내기 위해 우리는 수없이 이런 모순들을 파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태희<상경 · 무역 4>

백지 대자보

주제 : 두살을 맞는 한 · 총 · 련에게…

너도 나같이 2년생 징크스가 없기를 바래요.
—이종범—

화이팅! 한총련 사랑해요! 의장님.
—팬—

시대의 조류에 맞게 행동하는 지성인들의 새로운 도약의 길이 되기를.
—깐돌이—

생각하는 실천, 실천하는 생각의 장이 될 수 있는 한총련이 되길.
—익명의 섬—

광주는 너 한총련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빛고을에서—

부디 2년생 화초가 되지 말고 다년생 화초가 되길.
—꽃장수—

박해받는 모든 자의 한총련이 되기를….
—KE. 뺀질이—

투쟁의 역사를 통해 단단해진 우리의 대오! 백전 백승하시길 바래요.
—왕산 죽순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듯이 전대협을 생각하는 전통을 이어가길.
—이크—

이제는 젖먹던 힘까지 발휘할 때
—94. 젖먹이—

이제는 통일이라는 이유식으로 갈아줄 때.
—M. 버들이—

흙산의 소리

생활의 짐 교통문제

용인캠퍼스는 여타 서울소재 캠퍼스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80만 평의 광활한 대지 위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생회관과 도서관의 멋진 건물을 비롯한 강의동들이 띄엄띄엄 들어서 있고 왼편에는 오리들의 보금자리인 명수당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함 뒤에는 초라함이 잔재하고 있었다. 이제 대학에 들어온 지 3개월이 됐다. 초기엔 환상적인 겉모습에 매료돼서 보이지 않던 학교의 치부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나의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다. 그중에 가장 나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은 통학문제였다. 9시 30분 1교시가 있는 날이면 전날부터 긴장이 된다. 사당에는 통합버스가 많지 않을 뿐더러 일찍 끊긴다. 그나마 차를 타더라도 콩나물시루처럼 사람에 둘러싸워 서서가기가 일쑤다. 이런 버스에 시달리며 학교에 도착하면 수업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차의 증차와 새로운 노선버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지입제 버스 운행시간도 증차돼야하지 않을까.

양재 역시 마찬가지다. 아침 막차시간이 사당보다는 늦지만 아침시간에 붐비는 것은 마찬가지고 아침 11시 20분 막차가 끊긴 후에 학생들은 동서울까지 와서 버스를 타야하는 고통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 노선버스의 신설이 요구될 것이다.

왕산발전의 걸림돌은 무엇보다도 교통문제라는 것을 단연코 말할 수 있다. 외대발전을 위해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신다는 신임 총장님께 이런 점을 건의하고자 한다.

정영석<사회 · 무역 1>

대동제, 우리 문화의 장이어야

'빛나는 청춘의 기상'으로 시작된 5월 대동제, 그중 셋째날에는 호남좌도판굿이 붉은광장에서 열렸다. 바로옆 노천극장에서는 KBS 2TV '기쁜우리 젊은날' 녹화공연 리허설이 있었다. 호남좌도판굿은 본공연이었다.

너무도 대조적인 진풍경이 벌어졌다. 붉은광장은 소위 말하는 썰렁 그 자체였다. 학교주변의 몇몇 할머니, 꼬마들이 떠들썩한 꽹과리, 징, 장구소리를 듣고 모여든 것을 빼고는 지나가던 학생들이 잠깐 멈춰 구경하는 정도였다.

반면에 KBS 녹화 리허설은 노천극장을 둘러싸고 이문동을 뒤흔드는 사운드로 흙산을 모으고 있었다. 대동제는 외대생들의 문화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동마당이다. 대학문화는 개인주의와 단순한 재미가 아닌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건강한 문화다. 그런 점에서 호남좌도판굿은 대동제의 큰 의미를 안겨준다. 정녕 외대인이 함께 하고 즐겨야 할 행사에는 냉소적이고 TV라는 매체에만 매료된다는 것은 우리 외대의 문화가 얼마나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에는 불모지임을 보여준다. 또 나름대로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하려는 풍물패 학우게는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권성이<사범 · 한교 2>

성상품 도구 미인대회

젊고 아름다운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누구나 젊은 시절을 보내기는 하지만 젊다는 것은 언제나 특권이고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이다. 또한 아름다운 여성은 보는 이를 행복하게 한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사람의 눈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여성이란 그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여성을 말하는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렸다. 고려대에 재학중인 한모양이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됐다고 크게 보도됐다. 키가 1백 70이고 90—60—90….

엄청나게 많은— 무려 51명— 각 도에서 미를 대표한다고 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웃고 노래하고 과감하게 노출을 한 채로 전국의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 줬다. 그런데, 이런 미스코리아와 같은 선발대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첫째, 미스코리아는 외국의 귀빈이나 국빈에 대한 대접 정도라면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한 일이다. 그리고 외국의 미인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국내 선발전이라면 역시 생방송으로 2시간 30분이나 공공전파를 낭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둘째, 미스코리아의 기준이 무엇인가? 과연 대학교에 다니는 한 여대생의 미가 대한민국의 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2시간 30여분간이나 낭비하면서 뽑는다는 미스코리아의 선발기준은 무엇인가? 서양의 비너스를 모델로 해 미국이 수영복을 잘 팔아먹기 위해 수영복 심사를 버젓이 넣은 미인심사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미인이라는 기준하에 여성들이 남성의 눈요기거리로 등장하고 있고, 수많은 여성들의 동경 대상이 되는 미스코리아를 선발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겉모습만을 보고 아름다움의 기준을 삼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예전에 어떤 미스코리아는 선발되고서 누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냐면 바로 '미장원 언니'였다. 미장원이 미스코리아를 만드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는데, 미스코리아가 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의 사고방식도 절대 건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또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극적인 대회다. 성의 불평등구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마치 국가가 공인한 듯한 성차별과 성상품화의 대회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자본주의적 상품화의 극대화 된 표현이다. 돈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자본주의 세계에서 여성의 성은 매우 훌륭한 상품이다. 여기에 미개한 여성들— 그들도 피해자임은 분명하다— 의 적극적인 허영에 힘입어 수 천만 명의 시선 앞에서도 부끄럼없이 옷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의 기준이 보여지는 것으로만 평가받아서도 않되겠지만, 우리는 상품화된 가치가 자기완성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가는 대학인이 돼야 할 것이다. 언젠가부터 사회의 저질문화가 오히려 문화창조의 산실인 대학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계속 나오는 '덩달이 시리즈'라던가 '미스코리아'는 그 좋은 예인것이다. 개인적으로 미스코리아가 된 고대 여학생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우리의 시각을 좀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바라보자는대서 적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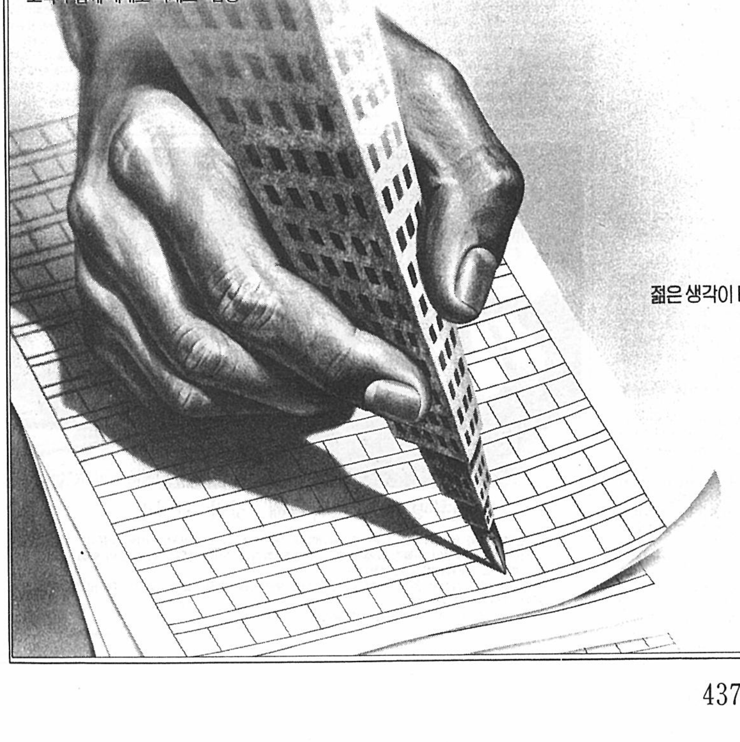
서 훈<정책 · 행정 4>

독 자 만 평

수입병아리의 배은망덕

이기영<동양 · 일본어 1>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젊은 생각이 미래를 젊게 합니다."

삼성「건설논문상」현상공모

삼성건설은 건설분야 기술력 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해
국내 건설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건설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응 / 모 / 요 / 강

1. 참가대상
- 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전공불문)

2. 응모기간
- 1994.8.29~9.6

3. 응모주제(7가지 주제중 택일)
-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련사항
-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대책관련사항
- 국내 건설기술 발전 관련사항
- 건설인력 육성 관련사항
- 지자제 실시와 건설업 관련사항
- 도시교통문제 해결방안 관련사항
- 국내건설업의 해외진출전략 관련사항

4. 응모요령
- A4 용지 30~40매 내외분량으로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제출 (원고용지나 학교명이 표시된 리포트용지는 사용불가)

5. 시상내역 및 수상자 특전
- 최우수상(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우 수 상(2명)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장 려 상(7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 이상 입상자 일본 견학기회부여 (3박 4일)

6. 작품심사
- 1차 : 삼성건설 자체심사
- 2차 : 삼성건설이 위촉하는 각분야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 입상자발표
- 1994. 10. 10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8. 시상
- 1994. 10. 18 (삼성건설 창립기념일)

9.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빌딩 삼성건설 기획팀(강남사서함 1430, 우편접수 가능)

10. 기타
- 수상을 하지못한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15만원)
-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국내외 저서나 논문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전을 밝혀야 함.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삼성건설에 귀속되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건설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TEL : 527-1741~2)

SAMSUNG
삼성건설

서울 학내문제, 협상 통해 대부분 타결

식당문제, 향후 4년동안 복지기금 5억원 마련으로 일단락

외대인의 날 예산지급·사물함설치등 단기복지사안 해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대동제기간동안 처장실폐쇄·단식 등 강경투쟁을 벌였다.

식대인상 저지투쟁이 쟁점화됐던 서울캠퍼스의 학내문제가 지난 25일(수), 27일(금) 이틀동안 진행된 대학당국과 학생측의 협상으로 대부분 타결됐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도시락판매를 통해 학생회측의 요구안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당국의 수용불가입장에 따라 대동제 기간동안 총무처장·학생처장실 폐쇄, 부총학생회장 진원(동양·이란어 4)·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홍문희(동양·이란어 4)군의 단식 등 강경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학당국은 지난 25일(수) 안병만 총장·총학생회장 오춘열(정책·행정 4)군의 단독면담과 이후 부총장·관련 부서처장과 학생대표와의 협상을 제의했다.

그러나 새벽 4시까지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는 식당문제·외대인의 날 등 주요사안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 지난 27일(금) 2차협상을 통해 마무리 됐다.

이틀동안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식당문제의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향후 4년동안 복지기금 5억원 조성에 합의했다. 복지 기금 조성은 학생측 연 3천만원, 당국이 연 6천만원의 금액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해 적립금 부분은 합의를 했으나 올해 식당가격은 인상될 예정이다.

식당복지 부분과 관련, 후생과의 예산이 아닌 예산으로 식권자판기를 1대 설치하고, 그 효과가 좋으면 계속 증설하기로 해 앞으로 식권을 사기위해 줄서는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후생과의 대학원·도서관 매점의 적자, 서점의 비효율적 운영 등의 부실경영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근본적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외대인의 날 예산으로는 1년에 2천만원 지급과 당국이 외부지원금을 통해 1천만원을 책임지기로 하고 40주년 기념사업회에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학술제가 올해 잘 치뤄질 경우 매년 실시할때 예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학생측은 외대인의 날 전체 예산으로 1억2천만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기 복지사안으로 올 여름방학때까지 △시범적으로 사물함 1천개 설치 △노천극장 돔(Dome)과 내부마이크 설치 △상경대 전산실 컴퓨터 기종을 최신종으로 일부 교체 △교수 연구동 건립으로 학교의 공간재배치시 최우선적으로 풍물패 공간마련 등 4개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마무리 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학원자주화 투쟁은 식대인상저지에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3월초부터 제기된 마스터플랜 수립및 이문동 주변 부지매입등의 굵직한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오춘열군은 "이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 대해 "학교측의 구태의연한 시간끌기로 한총련 출범식의 출발이 5시간이나 지연되는 등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학원자주화 투쟁은 과학생회의 투쟁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상층단위의 싸움으로 진행됐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김인옥 기자>

□교비지급 문제점 진단

학내 분규시 학생회 통제수단이용 가능성

예산의 효율적인 책정과 배분은 학생들의 학원자주화투쟁에서 중요한 목표중 하나이다. 1학기 초 등록금 투쟁을 전개하면서 학생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당국에서 학생들에게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교비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총학생회에 대한 교비지급 과정을 살펴보자.

1년동안 총학생회에 지급되는 교비의 액수는 명확히 밝혀져 있진 않다. 학생처 관계자도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길 꺼린다. 그 이유는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다. 일정한 분기(학기·년말) 액수가 없는 대신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별로 교비가 지급된다. 총학생회가 행사 가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면 학생처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학생처장의 권한으로 액수를 결정한다. 단대 학생회에 대한 지원은 단대학장의 권한으로 결정된다.

과 학생회 행사나 동아리연합회 소속 여러 동아리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란 상당히 어렵다. 예산의 부족이나 심의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종종있다.

총학생회가 대학당국과 학원자주화 싸움을 벌일때는 교비지원이 일절 중단된다. 서울캠퍼스 학생처 직원 오세권씨는 "학생들이 학교와 마찰을 빚을 경우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태가 빨리 수습되기 위해서 교비지원을 중단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교육적 조치'라는 명분으로 대학당국이 학생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1년 교비지급 액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행사별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회 예산을 기획할때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사무국장 양봉렬(상경·무역 4)군도 "행사별로 정확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사마다 더 많은 교비를 타내는 것이 중요 관행이 돼 버렸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회 사업의 특성도 이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대부분의 학생회 사업은 1학기에 집중돼 있는 반면 2학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사가 별로 없다는 사실은 귀기울일 만한 부분이 있다.

어찌보면 총학생회와 학생처간의 이런 일들이 학생처에서 주장하는 '교육적 입장'에 어긋나게 운영될 가능성이 많이 존재한다. 진정한 '교육적' 입장에서 우려가 큰 재정부문의 운영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부>

3자 대생협(건), 임시회의 개최

조합장 자격 인정여부 위해

조합장의 자격시비로 중단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생활협동조합 건설준비위원회(생협 건준위)의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30일(월) 생협건준위 위원장인 총무처장은 각 위원들에게 조합장 자격문제와 부재중인 학생측 위원 선임문제로 임시회의 소집을 공식 제안했다. 총무처장 명의의 공문서는 "현재 조합장의 자격에 대해 현 대생협측은 총회를 통해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학교측의 인정불가 입장과 대립되고 있다"라고 밝힌 뒤 "조합장 자격에 대한 각 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임시회의때 결정을 내리자"라고 전달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된 현 대생협측과 대학당국 실무 관계자들간의 내부 비공식적 접촉에 의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동의하고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 대학당국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처 장학보도계 김을수 주임은 "대생협 총회에서 인정한 것은 학생들만의 인정이다"라고 규정하고 "현 대생협 내부에서 활동은 조합장으로서 인정하나 공식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생협 건준위 회의가 참가 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안건이 처리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양측의 주장대로라면 문제해결 가능성은 어두운 상태다. 그러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절충안이 제안되는 등 물밑작업이 활발해 이번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사태해결의 큰 진전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서울, 공간문제 해결대책 없어

전시실 관련 갈등 심화돼

서울캠퍼스 학생회관에 위치한 취업연구센터가 전시실로 이전함에 따라 대학당국의 전시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대안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23일(월) 후생과 뒤편 창고에 있는 집기를 모두 인문과학관으로 옮기는등 강력한 항의표시를 했다.

이와 관련 외대 그림촌 김완선(사범·영교 3)양은 "얼마전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전시를 했으나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일찍 문을 닫아 많은 불편을 겪었다"라고 밝혔다.

재수강시 학점제한 철폐

W학점, 평점계산시 포함안돼

교무처는 학칙 제 37조 2항 재수강시 학점제한을 올 2학기부터 변경·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B^0급이하로 제한된 재수강시 취득성적 상한은 앞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현재 평점계산에 포함되고 있는 W학점제도도 평점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학점제한 제도 철폐는 올해초부터 양캠퍼스 총학생회에서 학원자주화 요구사안으로 주장해온 것으로써 대학당국이 이를 수용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한 간부는 "이 제도는 지난 91년 6·3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항의시위 이후 학원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생긴것"이라며 "이와함께 비교육적인 학사제적 제도도 반드시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학칙은 오는 6월 7일(화) 열릴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고 침>

본보 지난주 630호 기사내용중 기획조정처장 이종윤교수의 과를 노어과에서 무역학과로 바로 잡습니다.

용인 부회장, 유기정학 2주

학생측, 부당징계 철회 요구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부회장 김기우(서학·체코어 4) 군의 징계에 대한 학생들의 철회요구가 일고 있다.

지난 26일(목)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 위원장 동구어대 학생회장 김재규)는 각 단대별 연석회의를 갖고 김군의 징계에 대한 대응 방침으로 △즉각적인 철회 요구 △김군의 징계부당성 홍보 △징계위원들에 대한 항의방문 등을 설정했다.

김군에 대한 징계는 지난 17일(화) 열린 서양학대 징계위원회(위원장 심재일 영어과 교수)에서 유기정학 4주와 파손기물 변상결정이 내려졌으나 총장에 의해 유기정학 2주로 감면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대해 심교수는 "기물파손과 교직원에 대한 패덕행위에 많은 교수들이 강한 처벌을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김군의 징계사유는 지난 고정수양 학생 감전사고후 정양의 죽음과 관련해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사과 △학내 안전시설의 전면 점검 △교내에서 추모제 개최 등의 요구사안을 내걸고 부총장실에서 항의시위를 하던 중 집기파손으로 인한 것이다.

이번 부회장의 징계에 대해 학자추 위원장 김재규군은 "학교측의 안전시설 미점검과 부실행정으로 인한 학우의 죽음에 대해 부회장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었다"라고 밝힌 뒤 "또한 당시 기물파손등의 행동에 대해 유인물을 통해 공개사과를 했음에도 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김군은 정학기간중 학생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정지됨으로(학생징계규정 제 15조) 부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 또한 박탈당하게 된다.

초점

서울캠피스 정문을 들어서면 각 건물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자그맣게 보인다. 그러나 이 이정표는 크기가 작을뿐더러 건물 방향도 애매하게 표시하고 있어 학교를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타대학교에서 흔히 볼수있는 조감도나 큰 이정표의 설립이 시급하다. <사진부>

'94학년도 제2학기 정규 수강신청

1. 수강신청 일시 및 장소
   1) 일시 : 1994. 5. 31(화)~6. 3(금)…4일간
   2) 장소 : 소속학과 학과장실 및 부전공 지도 교수실
   3) 강의 시간표 및 수강신청 OMR카드는 수강신청 당일 소속 학과장실에서 배부함. (단, 컴퓨터용 싸인펜은 각자 지참)
2.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 당일 배부받은 강의시간표의 '수강신청에 관한 지침'을 숙지한 후 수강신청 OMR카드를 작성하여 학과장 및 부전공 지도교수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학과장실에 제출한다.
3. 미수강신청자에 대한 규제 조치
   등록을 하였으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업성적표상 그 해당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0.00으로 표기되고 학사경고 대상이 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의시간표 '수강신청에 관한 지침'을 참고 할 것.

*1994학년도 제1학기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변경안내

변 경 전	변 경 후
1994. 8. 23(화)~8. 25(목)	1994. 7. 18(월)~7. 22(금)

* '94년 5월23일(월) 정규수강신청 공고 내용중 "3. 재수강안내"에 관한 사항은 당분간 시행을 보류하며 차후에 그 내용을 공고할 것임.

1994. 5.

교 무 처 장

'94년도 예비군 기본교육 실시

직장 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전 예비군 대원은 일정에 따라 훈련에 참석바람.

1. 학과별 교육일정

일 자	교육대상학과	훈련장소	집결장소	집결시간	비 고
8. 29 (월)	교직원 대학원	미금사격장	학교및 미금훈련장	06 : 50까지	수송버스운행
8. 30 (화)	영어과, 불어과 독어과, 노어과	〃	〃	〃	〃
8. 31 (수)	서반어과, 포어과 이태리어과, 화란어과 스웨덴어과 일어과, 중국어과	〃	〃	〃	〃
9. 1 (목)	마인어과, 태국어과 아랍어과, 인도어과 이란어과, 터키어과 베트남어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	〃	〃	〃
9. 2 (금)	경제학과, 법학과 신문방송학과	〃	〃	〃	〃
9. 5 (월)	경영학과, 무역학과 사범대	〃	〃	〃	〃

2. 교육 훈련 비대상자
   가. 94년 전역한 예비군 대원 전원
   나. 지역에서 교육을 8시간 이상 필한자
   다. 전역 6년차 이상인 자
3. 유의사항
   가. 1일 교육인원의 제한으로 학과별로 실시하니 일정을 정확히 숙지할 것.
   나. 소집방법은 소집 통지서 배부 및 학보게재, 공고로 병행
   다. 소집 통지서를 필히 지참하여야 하니 예비군 본부에서 수령할 것.
   라. 수송버스 이용시에는 06 : 50 까지 학교에 집결바람.
   마. 개별 입소시에는 07 : 50까지 교육장에 도착할 것.
   바. 중식은 각자 지참할 것.
   사. 교육일자는 필히 준수, 지정일 이외의 교육은 절대 인정하지 않음.
   ※지연 도착자 (08 : 00이후 군부대 도착자)와 복장위반자(탈모, 군화미착용, 예비군복 미착용)는 귀가조치 및 불참처리.

직장 예비군 연대장

SAM YANG GROUP
창립 70주년 1924-1994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원하십니까?

기업마다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삼양사는 1924년 창업이래
제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는 지금
대학생 여러분의 의견은 삼양사의 미래에
큰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양

• 주식회사삼양사 • 삼양중기주식회사 • 선일포도당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화성주식회사 • 신한제분주식회사
• 전북투자금융주식회사 • 주식회사삼양메디케어 • 디완 삼만 파이버
• 삼양그룹연구소 • 양영회 • 수당장학회

기업이미지 설문조사

성명 남, 여 대학교(원) 과 년재학
주소 (우 : -)☎ -

* 본 설문조사는 당사의 채용 및 홍보에 관한 정보활용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있는 참여와 답변을 바랍니다.

1.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 )
   ①경제적 안정 ②사회적 체면 ③자아실현 ④사회에 봉사 ⑤대인교류
2. 귀하의 졸업후 예정진로는? ( )
   ①일반기업체 ②국영기업체 ③금융계 ④언론계 ⑤공무원 ⑥연구기관 ⑦교육계 ⑧자영업 ⑨진학 ⑩결혼
3. 회사선택시 가장 중요시 하는 요인? ( )
   ①성장성 ②안정성 ③급여수준 ④회사규모 ⑤최고경영자의 면모 ⑥선배, 연고 ⑦승진속도 ⑧사풍 ⑨업종 ⑩회사의 사회공헌도
4. 기업체를 알게되는 경로중 두가지를 선택하면? ( )
   ①기업광고 ②기사 ③제품 ④선배, 친지 ⑤기업설명회 ⑥전문잡지 ⑦TV, 라디오광고 ⑧산업시찰 ⑨산학제도 ⑩사옥위치
5. 삼양그룹에 대한 귀하의 이미지는? ( )
   ①매우 좋다 ②좋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나쁘다 ⑤매우 나쁘다
6. 삼양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 경우 그 이유는? ( )
   ①회사의 견실성 ②대외적 공신력 ③노사화합 ④지속적 성장 ⑤지역사회발전에 기여 ⑥인화적 회사 분위기 ⑦주위사람의 칭찬
7. 삼양그룹의 제품중 두가지를 아는대로 쓰시오.
   ①( ) ②( )

* 응답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응답자중 선착순 2,000명에게는 소정의 참가기념품을 우송해 드리고, 이외는 별도로 250명을 추첨하여 고급기념품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며 학업에 발전있기를 바랍니다.

〈자르는선〉

■응답하신 설문지는 오려서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우편번호 110-725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번지 삼양빌딩 (주)삼양사 인사부 설문조사 담당자 앞
■접수기한 : 1994년 6월 10일

'우리식 사회주의'로 체제 강화 기해

4 현시기 북한 사회주의 노선과 남북통일

김 남 식
<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민족대단결과 남한정부에 대한 자주성 강조는 북한이 통일문제를 풀어가는데 기본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구조적 붕괴는 북한 사회주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으로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90년 5월 국가권력을 새롭게 강화시키는 한편,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고 그것을 고수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치역량을 이에 집중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보다 강조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성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보편적 지도사상으로 되어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니라 '인간중심의 세계관'이라고 주장하는 주체사상에 의해 북한사회주의가 지도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식 사회주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체사상을 구현해 나가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다.

이러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의 담화에서 이론적으로 정식화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첫째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에 대한 사상생활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 둘째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와 당의 영도를 확고히 견지해 나간다는 것, 셋째 경제에서는 시장경제를 배격하고 계획경제를 실시하며 생산수단을 모두다 인민적 소유로 전환한다는 것, 넷째 자립경제노선과 당위원회 중심의 관리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는 것, 다섯째 외부 사상문화의 침투를 차단하고 사상사업을 강화한다는 것, 여섯째 수령·당·인민대중의 3위 1체를 사회주의 건설의 자주적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그의 우월성을 발휘해 나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이다"라는 정치적 구호와 함께 "사회주의는 우리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가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시장주의를 택하고 정치부문에서의 다원주의등을 수용한다는 것은 단기적 전망에서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나라들과의 관계정상화를 계속 유지하고 중국, 쿠바, 베트남, 라오스등의 사회주의 나라들과는 결속을 보다 다져 나가면서 제3세계의 반제·자주를 표방하는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일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체제인정과 더불어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8일 노동당 제6기 제21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3차 7개년 인민경제계획(87~93)을 충결산하고 앞으로 2~3년간의 완충기 과제를 토의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 2~3년간의 완충기의 분야별 실천적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토의·결정했다. 그 내용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경제성장 속도의 조절, 경제규모의 축소, 지력생존의 경제구조 완비, 대외경제관계의 방향전환등을 추진하면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라는 3대 부문에 경제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2~3년간 농업, 경공업, 무역등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경제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한층 높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체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가 있다.

한편,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외국의 투자와 기업설립의 보장을 위한 각종 법을 체택하는등 적극적인 경제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국제연합개발기구하에 중국, 러시아, 동구, 남북한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 개발계획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수정제의를 들 수가 있다. 즉, 1민족·1국가·두제도·두정부라는 통일의 기본방도를 유지하면서 종래의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중앙통일정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그것을 지역정부에 이관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방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점진적 연방국가 형성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수정내용은 지역정부에 국방권과 외교권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중앙연방정부는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공동대처 및 조절 그리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의 극히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느슨한 연방제이다.

또한 통일정책에 있어서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점은 민족대단결 10대원칙을 천명한 점이다.

지난해 4월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했는데 제1항에서 전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목표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 창립이라고 설정하고, 제2항에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초로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그리고 제3항에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공존, 공영, 공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 밖에 제4항은 모든 정치적 논쟁의 중지, 제5항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해소, 제6항은 민주주의 존중·달리하는 주의주장에 대한 배척중지, 제7항은 개인·단체의 불질·정신적 재산을 보호하고 그 재산을 민족대단결을 위해 활용·장려, 제8항은 접촉·왕래·대화의 실현, 제9항은 남북·해외의 전민족의 연대성 강화, 제10항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평가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10대강령 제시와 함께 민족자주의 원칙을 강조했는데 그 원칙으로서 첫째 외세 의존성격 포기, 둘째 주한미군철수 의지표명, 셋째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 영구중지, 넷째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의 탈피 등을 지적하고, 4개 사항의 원칙이 실현된다면 "남과 북은 외세의 간섭없이 서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북남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함께 손잡아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 4개 사항이 달국간 대화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 새정부의 문민정부 표방을 거론하고 "이것이 자주적 입장을 관철하는 선차적 요구이며 남조선 정권이 진정으로 자주적인 문민정권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척도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이 민족논리에 입각한 민족대단결의 주장과 함께 남한정부에 대한 자주적 입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앞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기본문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지난 1년간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아무런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사교환의 실무접촉마저 결렬되므로 매우 경색된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IAEA의 사찰과 함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일괄타결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되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입장인 만큼 앞으로 통일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같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그의 우월성을 발휘해 나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처럼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택하고 정치부문에서의 다원주의등을 수용한다는 것은 단기적 전망에서 예상할 수 없다.

한미간 체결한 조약·협정

4 경제기술 원조협정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미합중국 대사간의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경제기술 원조협정(경제기술 원조협정)'은 1961년 2월8일 서명되어, 같은달 28일에 정식으로 발효된 조약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70년까지 미국과 체결된 약 60여종 정도의 각종 불평등 경제협정 가운데서도 이 법은 단연 그 예속성의 정도가 가히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불평등한 경제협약이 그렇듯이 경제기술원조협정 역시 원조의 본래 목적이 한국경제의 재건을 우선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군사원조의 성격을 띄는것이었다. 이 협정이 군사원조의 성격을 띈다는 것은 제1조에 명시된 '경제기술 및 이에 관련된 원조가 국제연합의 제 목적 및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위를 유지하는 지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요건임을 공동으로 재확인한다'라는 구절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남한 자원에 대한 노예협정

그러나 이 협정이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경제조약임을 확인시켜 주는것은 바로 원조를 미끼로 한 대한민국 내 모든 인적, 물적자원 시설에 관한 그들의 무제한적인 통제감독권의 행사라는 점이다. 경제기술원조협정 제3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원조가 제공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인적, 물적자원 시설 및 일반적 경제사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여를 하며 미합중국 대표가 본 협정에 의한 계획 및 이에 관한 기록을 제약없이 계속 시찰하고 검시함을 허용하며 이미 제공된 또는 구상중인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타 관계된 정보를 미합중국에 제공한다' 즉 원조협정에 따르는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내 모든 정치, 경제, 군사시설 등을 미국이 감찰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제감독권의 허용을 명시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자주권을 미국에게 양도한다는 것이나 다름바가 없다.

또한 이 법은 한국정부의 예산을 미국이 임의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노골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조약 제4조에서 '미국정부가 요청한 방법으로 특별계정(計定)의 전액중에서 상기 통고문에 명시된 금액을 미국정부로 하여금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게한다'라고 명시해 놓아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이 한국정부의 예산을 사용할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법에서는 한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이나 개인 또는 관련기관들에게 관세 및 기타 세금등이 면제되는 온갖 특혜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어, 원조를 빌미로 미국 독점자본의 진출과 그들의 무제한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이 조약이 가지는 이러한 불평등성에 반해 이 조약의 거의 모든 조항에는 친절하게도(?)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될 원조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모든 조항마다 달고 싶은 단서는 이것이 아니었을까?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된 원조는 그것을 미끼로 미국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

글·실·는·순·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1.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2.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3.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4. **현시기 북한 사회주의 노선과 남북통일**
5. 총괄 :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장래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50년대 ~
국가기간산업
국가재건의 주역이 되었던 시멘트산업과 식품산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80년대 ~
종합금융산업
제2금융권의 핵심분야인 증권, 단자, 보험 등을 새로운 종합금융기업으로서 경제부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 ~
정보·유통·서비스산업
미래산업인 정보통신, 유통, 서비스업 등으로 2천년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
동양그룹은 발빠르게 미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길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질까요?
그 해답은 미래를 미리 살아가는 미래마인드입니다.
50년대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꼭 필요했던 시멘트와
식품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들었고, 80년대는 이끌었던
종합금융산업의 기치를 누구보다 앞서 내걸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
우리의 미래는 정보, 유통, 서비스산업으로 압축됩니다.
동양그룹은 이미 이러한 미래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젊은 동양그룹, 계속 지켜봐 주십시요.

동양그룹

동양시멘트·동양제과·동양증권·동양투자금융·동양메이저생명보험·오리온프리토레이·동양매직·동양해운·동양마트·동양창업투자·동양투자자문·동양선물·동양SHL·동양산업기계·동양파이낸스·서남재단

□지역학 시리즈(하) – 국내외 지역학 연구 현황

선진국, 지역학 연구 · 투자도 이미 선진적

김 상 철
<대학원동구지역학과 3학기>

지역연구의 현황은 연구자, 연구경향, 연구기관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데, 본 글에서는 각 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미국의 지역연구 기관

세계에서 지역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학부과정의 교양교육을 중시하는 미국 대학제도의 특징이 지역학 과정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미국 대학들은 대부분 언어,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기본 과목들의 수강을 지역학의 선수과목으로 학부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 과정에서는 심화된 지역학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대학별로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존스 홉킨스, U.C.L.A 와 U.C 버클리, 코넬, 세븐힐을 위시하여 많은 대학들이 각 분야별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 대학내의 지역문제 연구소는 1백61개로,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관련 41개, 중남미 관련 41개, 러시아 관련 22개, 아프리카 관련 17개, 중동 관련 16개, 유럽관련 9개, 기타지역 관련 연구소가 15개 있다. 이러한 지역별 분포는 현재 미국의 관심이 아시아 중남미에 치중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버드 대학에는 중국, 한국, 베트남등 중국문화권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옌칭연구소가 있으며, 동연구소에서는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하버드 대학에는 러시아학과 우크라이나학도 지역학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U.C버클리에서는 동아시아학 연구소가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센터로 세분화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대학의 국제학 연구소에서는 라틴아메리카학, 중동학, 슬라브-동유럽학, 남아시아학등 남동아시아학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스탠포드 대학은 동아시아학 센터, 라틴아메리카학 센터, 러시아-동유럽학 센터를 중심으로 학부와 대학원이 연계하여 지역학 연구를 행하고 있다. 아시아학과 더불어 중남미에 대한 연구는 중남미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주립대의 각 대학들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의 지역연구 기관

일본의 지역연구는 정부 · 대학 · 기업이 개별적 또는 상호연계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주요사항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일본에서의 지역연구 기관으로 특히 눈에 띄는 곳은 국립민족학박물관이다. 이곳은 세계의 제민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민족학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94년도 일본 정부예산에는 이 단체 산하의 지역연구교류센터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구는 재정사정으로 인해 소규모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세계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간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들라산 일본 국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산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연구로 정평이 나있는 아시아경제연구소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독립국가연합, 동유럽으로 구성된 지역연구부, 경제개발연구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등 3개의 프로젝트팀으로 이루어진 종합연구부로 나뉘어진다.

도쿄대 부설 동양문화연구소에서는 동양문화에 관한 종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서구지향적인 2차대전 이전 일본의 연구풍토를 개선하고 인접국인 아시아에 대한 심화연구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아시아 제지역에서 사회 · 문화의 변용과정,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가권력과 사회경제구조 및 서민문화의 형성과 전개, 남아시아에서 지배체제와 사회구조, 서아시아문화의 역사적 형성과 현대적 과제등이 동연구소의 연구목적이다. 정기간행물로서 '동양문화연구소기요'와 '동양문화'를 발행하고 있다. 그 부속시설로서 동양학문헌센터를 두어 근대중국의 정치 · 법률 · 문화 및 2차대전후의 중국 · 한국간행물에 대해 수집 · 열람 · 목록작성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일본을 중심으로 구미 및 사회주의 제국의 정치 · 경제 · 사회등의 특징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비교 ·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교토대학의 동남아연구센터는 자연 · 인구 · 문화 · 사회구조, 정치 · 생태환경 · 경제발전등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부문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동대학의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세계문화에 관한 인문과학의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가 '동방학보' '동양학문헌유목' '인문학보' '조사보' '인문' 등의 정기간행물에 발표되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서구등의 사상, 문화, 사회, 역사, 지리, 예술, 과학, 종교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이밖에 홋까이도대학 법학부 부속 슬라브연구 시설로 발족하여 1978년 연구센터로 개편된 슬라브연구센터는 유라시아북방권 및 북태평양권의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명성이 높다. 또한 도쿄외대부설 아시아 · 아프리카언어문제연구소에서는 해당지역의 언어, 역사, 민족학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유럽의 지역연구 기관

미국의 지역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 경향이 강한 반면, 일본이나 유럽의 지역학은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을 포괄하는 학제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19세기부터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지역학을 도입하고 동양및 아프리카를 연구해 왔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과 유럽으로 연구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또한 고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동양및 아프리카학이 12개, 영국및 미국학이 42개, 프랑스학이 31개, 그리고 독일학이 26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특히 영국대학의 프랑스학과와 독일학과는 어문학적인 관심과 더불어 대중매체, 우파운동, 여성학, 지식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독일의 주요 지역학 연구대학은, 동서대립의 장소였던 베를린의 자유대학, 남동부 유럽과 아프리카 민속학을 중심으로 하는 뮌헨대학, 미국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항상 동유럽으로의 확장을 시도하여 온 독일은 지역학의 경우에도 동유럽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동유럽중앙연구소가 중심이 되는 동유럽학회는 비스마르크가 수상이었던 19세기말에 이미 설립되었으며, 8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국내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유럽연구 학술지인 'Osteuropa'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왔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본교와도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서 지역학 연구지들을 주로 배출하고 있다. 이 대학의 지역학 연구자들에게는 현지체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후 이러한 연구자들이 외무성과 과학아카데미 산하의 동방학 연구소와 같은 지역학 연구기관으로 진출하여 지역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과거 진상규명문제 등을 제조명한다는데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미, 아시아 관련 연구소가 41개…아시아에 관심 집중

외국대학 지역학 연구, 현지 체류 · 정기 간행물 발간도 필수

미 · 일을 비롯 유럽등 많은 국가에서는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학/술/단/신

'5월광장어머니회'초청강연

인권침해 문제 논의

아르헨티나의 '5월광장어머니회'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초청으로 오는 6월7일(월) 부터 17일(목) 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5월광장어머니회는 지난 77년 아르헨티나 군부독재때 의문의 실종으로 자식을 잃은 14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현재 2천여 회원이 아르헨티나의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고, 이를 시정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5월광주어머니회를 초청한 민가협은 이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공동심포지움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6월8일(수)에는 시사저널 관내 예음홀에서 오후 6시30분에 '평화를 위해 싸워온 5월광장어머니회 20년'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 및 비디오상영 ·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또 15일(수)에는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 문제-두나라의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 · 아르헨티나의 공동심포지움이 대한변협 서초별관에서 오후 4시에 열린다.

해방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정치 · 사상 역사 고찰

역사문제연구소와 역사비평사는 공동으로 해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6월4일(토) 오후 2시에 성균관대 제2교수회관 4층회의실에서는 이러한 기념사업의 하나로 '해방 50년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린다.

밖으로 냉전체계가 해소되고 안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실현돼 가는 현 시기에 한국사회는 민족적 이념의 체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이념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해방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이념문제, 즉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 ·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미제에 의해 강요된 이념에 지배돼 왔던 한국역사를 정치 · 사상사의 차원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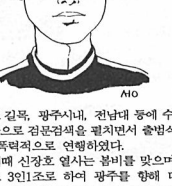
광주에서 3일간 치뤄진 제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이 지난 30일(일) 도청앞에서 열린 '시민 · 학생 한마당'을 끝으로 평화롭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4년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제4기 출범식이 있던 광주에서는 전경들이 출범식 장소인 전남대를 원천봉쇄하고 검문검색을 펼치며 학생들을 강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로 가던 한 학생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바로 전대협 사수의 화신으로 전대협 역사에 기록될 신장호 열사이다.

1969년 6월6일 서울 정릉에서 태어나 정릉 산동네의 철거로 인해 성남으로 오게된 그는 15세때 아버지를 여위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

그는 인천기계공고를 졸업한 후 89년 건축가가 되겠다는 소박한 꿈을 안고 성남 대유공업전문대학 건축과에 입학하였다. 대학에 들어온 신장호 열사는 노래패 '어울림'에서 생활하며 사회의 현실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과에서 대의원, 동아리에서는 기획부장을 맡는등 활기넘친 대학생활을 했다.

1990년은 전대협을 비롯 각계각층의 민주세력들이 연초부터 광주민중항쟁 10주년 기념 계승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을 결의하고 있었다. 5월 19일에는 전대협 제4기 출범식이, 20일에는 광주항쟁 10주년 기념국민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권은 전국 각 도시의 역, 터미널과 광주로 통하는



전대협 사수의 화신 신 장 호

주요 길목, 광주시내, 전남대 등에 수만 명의 전경을 배치해 이중삼중으로 검문검색을 펼치면서 출범식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이때 신장호 열사는 봄비를 맞으며 대유대 교정에서 출정식을 갖고 3인1조로 하여 광주를 향해 떠났다.

그에게 광주로 가는 길은 사회의 현실처럼 정의로운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이틀동안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다 기차를 타고 광주로 향하던 신장호 열사는 장성역에서 내리려 했으나 역시의 삼엄한 검문에 다시 기차로 뛰어올랐다. 열차가 출발한 후 속도가 붙기전 뛰어내리기로 한 그와 후배들은 시속 40km로 질주하는 기차에 뛰어내린다. 이때 신장호 열사는 철도변에 쓰러져 의식을 찾지못한 채 응급차에 실려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광주에 도착한다.

광주에서 전대협장으로 치뤄진 장례식 때 제4기 전대협의장 송갑석군은 "누가 이 피바람 부는 오월에 동지를 차디찬 영안실 바닥에 눕혔습니까, 누가 그대를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게 만들었습니까" 라며 그를 보냈다.

내나라 내땅을 다니는데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안타까워 했다. 죽어가던 신장호열사가 끝내 저 세상으로 간 후에야 전대협 출범식은 봉쇄되지 않았다.

이후 신장호열사의 유족은 지금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가 있다.

신장호 열사는 망월동 한구석에서 전대협 사수의 화신으로 우리를 계속 지켜줄 것이다.

<사회부>

온 디멘드(on demand)

소금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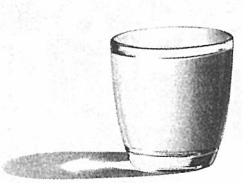
온 디멘드(on demand)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로 대응하는 서비스로서 컴퓨터기술이 뒷바침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비디오 온 디멘드의 경우 기존에는 호텔같은 곳에서 영화상영시 방마다 VCR을 설치하거나, 케이블을 설치하여 짜여진 프로그램에 맞춰 상영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온 디멘드를 도입할 경우 영화를 전기신호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한 으로써 고객들의 요구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2백개의 투숙방에서 10분 간격으로 똑같은 영화를 요구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국내에도 이미 실행중인 팩스 온 디멘드는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전화기를 이용해 요청하면서 자신의 팩스번호를 알려주면 팩스가 자동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기술이다. 신문 · 방송 · 체 부분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됐다.

소주세대와 맥주세대간의 거리를 좁히자!



청년중역회의와 중역현장체험제도를
통해 세대간의 조화를 이뤄가는 「현대자동차」

"하루에 한번씩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자!"
– 여기서 출발한 것이 바로 '청년중역회의
(일명 쥬니어보드)' 와 '중역현장체험제도' 였습니다.
대리들이나 사원들이 직접 중역의 입장이 되어,
의견을 기탄없이 쏟아낼 수 있게 되었고, 이 안건들은
빠짐없이 사장님에게 전달되어 현실 가능한 것들은
직접 반영되기도 하죠.
반대로, 중역들은 20년전 사원의 자리로 되돌아가
생산현장에서 직접 일해보기도 하고, 각 부서들의
말단 자리에 앉아 그들의 고충을 직접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입니다.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치있게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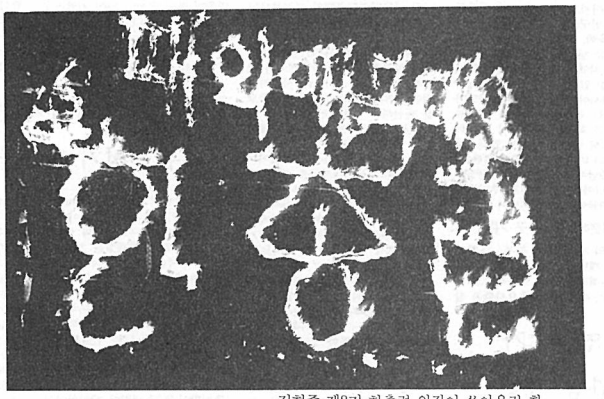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민족대학 건설과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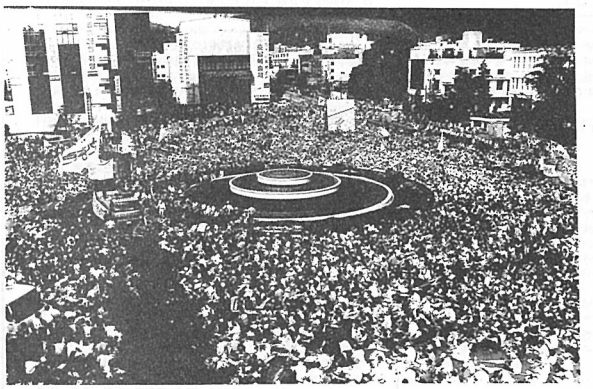
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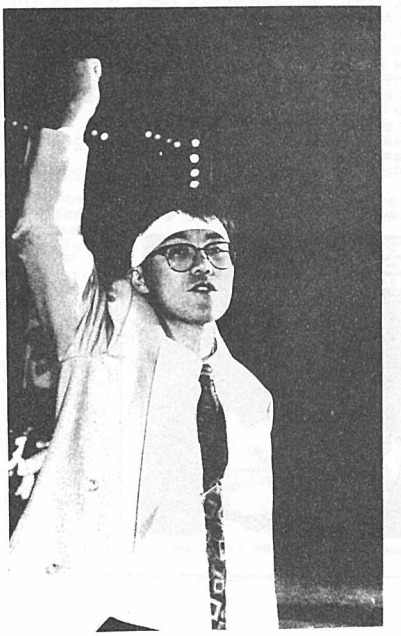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출범식 기간중 5월문제 해결은 주요 핵심내용였다. 사진은 거리에 페인트 글씨를 쓰는 학생의 모습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 김현준 제2기 한총련 의장이 쏘아올린 화살에 성조기가 태워지고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이라는 불글씨가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다.



다시보는 5월 광주 조선대를 빠져나온 학생들과 시민들이 80년의 그곳, 도청에 모여 5·18진상규명과 수입개방 저지를 외쳤다.



조통위 출범식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 출범식 도중 한반도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남총련이 한반도 가상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극을 한 것이다. 무시무시한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극을 한 것이다. 무시무시한 가상 전쟁 후에 통정한 조통위 위원장으로 옹립된 양동훈(조선대 총학생회장)군은 "연방제 통일을 구체화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매진하는 실천투쟁으로만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며 시대적 배경때문에 주저하는 것은 청년학생의 길이 아님을 당부했다.

불패의 한길 달려온 자랑찬 백만청년
민족의 등불은 청년의 눈빛 당당히
조국의 피로 꿈틀대는 팔목에 힘을
자주·민주·통일 성전으로 한총련
1994년 5월 28일(토) 밤. 민족의 운명
그 두번째 닻을 올렸다.

자신의 아들을 조국의 아들로 바치겠다
그의 아들 김현준(부산대 총학생회장)
한총련의 앞길에는 어머니의 걱정만큼이
동터오는 새벽 조선대 운동장에 모인 한총
여명을 맞이할 것이다. 한총련 진군가와
성조기를 쏘자 성조기는 불타오르고 동시
드러냈다.

즐거운 투쟁 따사로운 5월 햇살이 비친 출범식 마지막날 밝은 웃음으로 광주시민을 만나는 여학생들의 모습.

현정권 풍자극 평화적인 시내 선전전을 하는 중 미국의 입장에 항상 놀아나는 현정권의 세태를 풍자하는 집체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범식에 참가한 5만여명의 학생들은 29일(일) 오전 '수입개방저지와 5월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시민 결의대회' 사전집회를 갖고 조선대를 빠져나와 도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시민·학생 7만여명이 참석한 도청앞 집회에서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의장 오종렬씨는 "이자리에 앉아있는 자랑스런 청년들이 있기에 조국의 미래는 밝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거리행진중 도로주변 상가에 나온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식수·음료수 등을 제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청앞 집회가 끝난뒤 학생들은 아메리칸 센터와 민자당사를 방문, 달걀 20여개를 던지는 등 약식 항의시위를 전개했다.

국통일의 쉼없는 진군

2기

총·련

애국의 팔목에 힘을 주어라 1천여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롭게 치뤄진 전야제와 출범식 본행사는 그 준비만큼 5만여 학우들의 갈채를 받았다.

사수! 조국농업 출범식 기간중 전국 농업관련 동아리와 과에서는 쌀수입개방과 관련 미국의 본질을 알리는 입체적 선전을 펼쳤다.

제작 : 사진부

막간의 단잠 새벽까지 진행된 전야제로 인해 지친 몸은 막간의 자유시간에 선잠으로 보충하고, 또 오늘의 출범식을 사수한다.

험! 한총련

아
활혀 가리라
주어리
깃발 드높이…
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 드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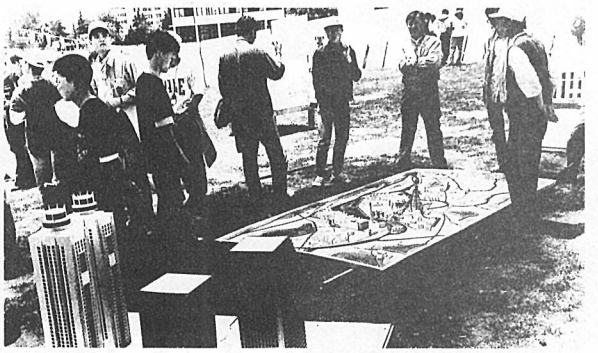
는 어머니가 백만학도를 믿고 단상위에 올라왔다.
의장으로 옹립함으로써 두번째 걸음마를 내딛은
나 많은 투쟁과 피와 땀이 흘뿌려질 것이다. 그러나
련 백만학도의 함성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햇새벽의
함께 가마를 타고 등장한 김현준 의장이 불화살로
에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이라는 글씨가 자태를

학자위 출범식

"학원대개혁의 임무를 가지고 1월 초부터 현재까지 단식농성, 총장실 점거농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캠퍼스를 분당으로 이전하려 했던 학교측에 반대해 싸우고 있는 단국대 학자투쟁 사례보고다.

험난하고 지난한 학원자주화의 길, 그러나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옹립된 최진선(본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군의 교육개방저지, 민족대학 건설의 당찬 의지와 백만학도의 기상이 자주 학원의 앞날을 밝혀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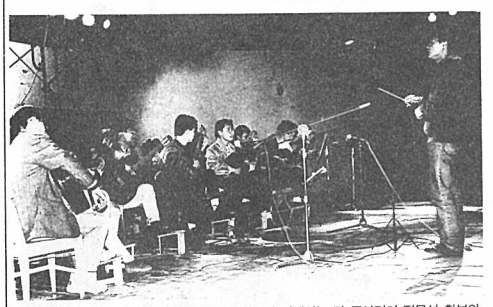
03이의 일기 그동안 한겨레신문을 통해 풍자된 YS에 관한 시사만화가 한곳에 전시돼 많은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북한을 한눈에 조선대 교정에 임시로 마련된 통일거리에서는 북한 평양시내의 주요건물과 전경을 보여주는 건축물이 마련돼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다.

'교육개방저지와 김영삼 정권의 허구적 교육정책 분쇄를 위한 전국 7만 예비교사 결의대회'
'언론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대학언론인 결의대회'
'한총련 사수와 전예협(전국예비역협의회) 건설을 위한 맏사내 결의대회'
'조국농업사수 및 민족농대 건설을 위한 전농대협 결의대회'…
한총련 출범식에 모인 5만여 학생들이 조선대 여기저기서 벌인 부문계열조직의 결의대회 이름들이다.
그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되기에 김영삼 정권은 너무나 왜소해 보인다.

흔들리는 동아리 — <1>자기길 찾기 <2>중교분과 점검



자주적이고 대중적인 동아리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동아리의 전문성 확보와 분과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독특함, 전문성, 다양성 거듭나는 묘약

"요즈음 동아리 생활 어때?"

우리 대학생들 사이에 흔히 오가는 대화다. 대학인으로서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함께되고 더 나아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개중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이룬 무리'라는 뜻의 순 우리말 동아리.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 관심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은 동아리 선택에도 지아실현의 계기와 더불어 졸업후에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동아리를 선호한다. 이와함께 과학생회가 튼튼해지면서 기존의 동아리가 수행했던 노래패, 풍물패, 사회과학회, 문학회 등의 내용을 지체내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게 되었다. 굳이 동아리를 찾지 않아도 과일을 하면서 지신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씨앗' '한솔밤' '세사리' '소소리패'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각과에 소모임들이 생겨난 것이 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아리 위기'. 과소모임과의 다른 그 나름의 독특함과 차별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동아리 지체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각 동아리들은 자기만의 색깔과 영역을 찾아 새로움을 갖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 풍물패로서 학회단위 풍물패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민속악놀이반은 이렇게 길찾기를 하고 있다. 민속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정기 강연회를 통해 보급하는 것, 다른 하나는 민속놀이를 연구하여 대동제를 통해 선보임으로서 외대내에 공동체 문화를 뿌리내려 나가는 것이다. 민속악놀이반 정인구(동양·중국어 3)군은 "예전엔 풍물 위주로 흘렀지만 '놀이' 부문에 역점을 두고 전문성을 살리고자 합니다"라며 "가면극 연구회와의 연계를 통해 민요와 함께 춤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변화상을 밝혔다.

한편에선 전문성, 심화된 내용에 앞서 내용의 대중성을 살리자는 의견도 있다.

용인겐퍼스 '민족사연구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시간사냥'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부했던 역사현장을 찾아서 역사기행을 다녀와 민족의 숨결을 피부로 느끼며 활동한다는 특성을 지녔다. 즉 자주적이고 대중적인 동아리를 향한 또 하나의 길찾기인 셈이다.

동아리가 제자리를 찾기위해 동아리의 변화의 몸짓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과활동의 활성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용인겐퍼스 동아리연합회 회장 이정훈(서학·포어 4)군은 "전문성이 비슷한 동아리끼리 잦은 교류를 통해 함께 사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각 동아리의 전문영역을 튼튼히 다지고 내용을 깊고 넓게 펼쳐갈 수 있습니다"라고 분과사업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한다.

간과해선 안될 점으로 "내가 똑바로 서있을 때 우리 동아리도 똑바로 서있다"는 한사람 한사람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 동아리들이 끊임없는 변화와 자기모색의 진통을 통해 거듭날 때만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공동체문화는 피어날 수 있다.

<문화부>

□문화초청—제1회 한총련 작은 영화제

민족영화 발전을 향한 힘찬 포문

제작비·다양한 작품·다수 참여 부족,아쉬워

덜컥거리며 돌아가는 영상기계가 만들어내는 화면에 가끔 장대비가 내리고, 이렇게 제1회 한총련 '작은 영화제'는 지난 28일(토) 조선대학교에서 그 첫 발을 내딛었다.

한총련 영상서업단과 동국대학교 영화창작소모임 '전진새날'이 개최한 이번 영화제는 한국영화계의 민족영화 기반을 다진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민족영화는 그 나라의 민족성과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모순을 비판해 참다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80년대까지 우리영화는 그저 오락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로소 90년대를 넘으며 비제도권의 젊은 영화인들에 의해 민족영화는 불이 지펴졌다. '청년'과 '장산곶매'가 중심이 돼 제작한 '닫힌 교문을 열며' '어머니, 당신의 아들'등의 영화가 그 예이다.

영화를 사랑하는 대학생들의 관심이 민족영화에 모여 창작한 이번 영화제에는 그리 매끄럽지 않은 솜씨로 3편의 영화 '문' '그들은 아직도' '바보 파래표'가 선보였다. 내용에 있어서는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현실 반영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기도 했다.

민족의 이념문제 때문에 빚어진 희생양과도 같은 장기수들의 문제를 다룬 영화 '문'은 국민학교 5학년 소년과 장기수의 만남을 소재로 다룬 내용이다. 문은 우리의 교육의 문, 정치의 문, 곧 우리 민족의 닫힌 마음을 상징해 우리 민족의 비극을 느끼게 했다.

통일을 소재로 한 영화 '그들은 아직도'는 평소 기발한 착상을 잘하는 주인공 현식이 통일에 대한 정세조사와 연구를 거듭하여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보게된다. 특히 미군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주둔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발전한다. 그 후 미국의 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다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고 만다.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최창환(동국대·영화학 2)군은 "통일을 이루는 주체를 이제 일반대중에게 돌려주는 것이 시급하며, 그 일을 이 영화를 통해 도울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바보파래표'는 앞의 두편과는 달리 가벼운 내용으로, 홍치산씨의 시점을 각색한 영화다. 대학생들의 생활, 주로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주인공 파래표의 노력을 익살스럽게 그렸다.

작은 영화제의 막을 내리며 준비 위원 이재영(동국대·영화학 2)군은 "계획으로는 4편의 영화가 준비됐는데 기계설비의 부실로 상영을 못했다"고 밝혔다. 그 한편은 청주대학교에서 창작한 '조국을 위한길'이란 영화로 전대협에서 한총련에 이르기까지의 대학생 역사를 다큐멘타리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기계설비, 필름을 비롯한 제작비의 전부를 학생들이 마련하기 때문에 제작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미흡한게 사실이었다. 이에 한명순(동국대·영화학 3)양은 "최근 대기업의 관심이 영화에 쏟아 젊은 인재양성을 한다며 후원을 하지만 모든것이 그들에게 이윤을 줄 상업영화를 위한 것이다"며 영화예술이 상업화 되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대학생에 의해서 만' 창작·상영된 한총련 영화제는 소수의 한정된 참여 속에 다양한 작품이 상영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행사였다. 시작의 테이프는 몇몇 영화를 사랑하는 대학생에 의해서 었지만 긴 마라톤이 될 우리 민족영화 발전의 길은 이후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뛰는 한마당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 본다.

<이수미 기자>

□5월 대동제 이야기

흩어진 청춘의 기상 …목마른 대동제

지난 23일(월), 서울캠퍼스의 오월대동제는 무심히도 내리는 비와 함께 시작됐다. 26일(목)까지 4일간 계속된 대동제는 무엇을 남겼는가.

우선 시월제, 외대인의 날에 더 익숙한 외대인들에게 4년만에 부활된 5월 대동제는 낯설기 그지 없었다. '수업은 들어가야 하는 걸까, 대동젠데 나는 뭘 해야 하지?' 등등.

식대인상저지 등 단기 학지사안을 둘러싼 싸움속에서 치뤄진 이번 대동제는 더나은 오월대동제를 위한 경험 축적기로 볼 수 있다. 남씨뿐 아니라 학교측과의 마찰로 교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행사에 차질이 있었고, 또 오후 수업을 빼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객관적 어려움이 있었다.

기획을 맡은 총학생회 기획부장 장훈화(사범·독교 4)양은 "5월 들면서 각과 혹은 개인별로 흩어지는 분위기를 어떻게 모아내는가가 가장 큰 과제였다"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으나 "짧은 준비기간으로 선전 및 준비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준비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오월대동제가 1학기 동안 쌓았던 역량을 마음껏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함에도 오월대동제의 경험이 없는 각과 동아리가 일일호프, 체육대회, 동아리 한마당 등을 미리 해버리기도 했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로 2천여명이 모인 KBS의 '기쁜우리 젊은날' 공개녹화를 들었는데 이는 총학생회가 대동제 분위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총학생회는 처음에 '기쁜우리 젊은날'을 유치하면서 모두 과 깃발 아래 모여 과성원들끼리 의지를 모으고 9월에 있을 외대인의 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앉아 관람해 '공연구경'의 수준을 크게 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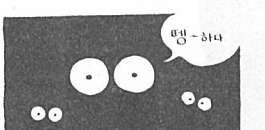
반면 이란어과 주점에 참여했던 구은주(동양·이란 1)양은 "힘들었지만 입학해서 처음하는 대동제라 재밌었다"고 말하는 등 주점이나 광빌수 판매 등으로 대동제에 활발한 참여를 했던 학생들은 대동제를 '좋았다'고 평가한다. 또한 교수님 노래자랑, 하숙집 아줌마 노래자랑 등 족닙은 외대인을 포함하기 위한 고민도 엿보였다.

대동(大同)의 장이 되기에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막을 내린 대동제, 그러나 그 시행착오 속에서도 진정한 대동이 되기 위한 발전의 씨앗도 분명 숨겨져 있던 4일간이었다.

<문화부>

4년만에 부활한 서울캠퍼스, 5월 대동제는 남씨뿐 아니라 학교측과의 마찰로 교비지급이 되지 않았다. 큰 행사는 있었으나 외대인의 기상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북누리 말글살이



<11> 뗑하다

37. 정신이 몹시 얼떨떨하다

"누구를 찾아?" 첫머디부터가 온곱지 않았다. 성옥이는 어이가 없었다.

"허장립을 찾아." 성옥이 역시 반말로 대꾸했다. 그러자 코를 내밀었던 얼굴이 뗑해서 성옥이를 깔보듯 훑어보더니 문을 닫았다. 한동안 방안은 조용하였다.

-소설 '니의 동무들'중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

문화 응답샘

조국과 청춘 3집

청년학생들의 올바른 삶을 담은 이 테이프는 청년학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중심에 두고 95년 조국통일을 맞이하는 청년학생의 지세를 그대로 표현했다.

'한총련 전군가' '새세대 청춘송가' '조국을 노래하라' 등의 노래와 대학생들의 만남, 취업문제 등을 담은 '4학년' '내일을 위한 이별' 등을 노래에 담아 대학생활을 진솔하게 그렸다.

<조국과 청춘·3천5백원>

대지의 유언 상·중·하

— 임영순 지음

일제 때 토지를 빼앗기고 정처없이 유랑하는 민족의 수난사를 처절하게 표사한 소설이다.

서해안의 간척지에 방조제를 쌓기 시작하는 것에서 농장이 완성되자 전국 각 지방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일본인에 의한 노예화 현장이 잘 나타나 있다.

<세림·각 5천원>

빈첸시오, 살아서 증언하라 1·2부

— 김현장 지음

82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부미방)'의 주인공 김현장씨가 80년 5월 광주와 부미방 사건,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담담하게 기록하였다. 제 1부에는 광주 민중항쟁을 통한 반미의식의 제기 및 그 실행을 위한 준비과정 등의 비극적 체험과 분노가 담겼다. 제 2부에는 부미방 사건과 그 이후에 펼쳐진 그의 인생역정이 긴박감 넘치게 그려진다.

<사회평론·5천원>

전교조 결성 5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현장에서 건재한 교육개혁의 구심

EI 가입 · 노동법개정 움직임, 전교조 합법화 전망 밝게해

지난 29일(일) 동국대에서 열린 '결성 5주년 기념 교사대회'에서는 교육개정 위한 20개 선결과제가 제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5주년을 기념해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지난 29일 1시부터 동국대 운동장에서 1만 5천여명의 교사, 학부모, 예비교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대부분 현장교사를 중심으로 참여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라는 교사조직이 불법 상황에서도 5년간 건재하며 교육개혁의 상징적이고, 실천적인 단체로 우뚝 서 있음을 확인시켜 줬으며, 지난해까지 소수 해직교사들의 단체로 전교조를 매도하던 교육당국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었다.

또 전교조가 지난 해 10월 국제교원단체총연합(EI)에 정식 가입해 국제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은 사실과 한국노총 외의 노동단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노동법 개정의 움직임은 대회 참가 교사들에게 합법화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교사대회는 특히 그동안 전교조의 상징이었던 해직교사들 대부분이 올 초 학교로 복직한 새로운 상황에서 열려 더 뜻이 깊었다. 참가한 교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2월 전교조 12차 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확정된 전교조 제2기 출범을 선언했다. 이는 실제적인 교육개혁 세력으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발벗고 나서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 아래서 교육부가 올해를 교육개혁의 해로 선포한 상황에서 이러한 교사들의 주체적인 움직임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전교조의 교사대회는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복돋우며 교육의 일주체로 교육개혁에 떨쳐 일어서겠다는 결의와는 다른 내용의 결의의 장이 되었다. 태국방콕에서 열리는 국제교원단체총연합 아태지역 여성세미나에 참석 중이던 정해숙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정부가 개혁을 표방하면서도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있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가 나서 교육개혁의 큰 파도를 만들자고 말했다.

사실 현재 교육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개혁의 내용을 보면 국가경쟁력강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월반 · 속진제,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등을 실시한다고 하고, 상문고 비리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립재단의 비리 근절을 위한 속시원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종 잡무는 증가하는데 교원복무규정 등 교사들에 대한 통제책 마련에나 신경쓰지 열악한 교원 처우는 아랑곳하지 않는 점, 올해 교육재정이 지난해보다 삭감됐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교육환경 개선 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회 참가자들은 교육개혁에 역행한다고까지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당국의 실질적인 교육개혁을 촉구한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교원의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반 제도의 실시와 교육관련 악법의 개정 등 교육개혁을 위한 20대 선결과제를 제시해 당국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위원장이 6월중에 교육장관과의 대화를 공식 제의한 것은 대화 맥이 상통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20일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해 오병문 장관과의 대화가 비록 팽팽한 견해 차이로 좋은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서로의 고민과 처지를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산적한 교육현안과 당면 현안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김숙희 장관과의 대화를 제의한 바 있다.

이번 교사대회는 앞으로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이라는 강령에 입각한 사업의 전개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3백여 해직교사들의 원상복직과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라는 커다란 대외명분에 정권측은 다시한번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 태 수
<전교조 신문 기자>

한총련 출범식 같이 치뤄낸 조선대 직원들을 보며

출범식에서 정부 · 학교와 학생간의 중계자 역할 충실히 해내

1만 5천여명의 경찰병력으로 '진압태세'를 갖추고 "국가보안법에 접촉될 소지가 있으니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며 한총련의 폭력성, 이적성 운운하는 정부의 압력에도 지난 5월 27일(금)부터 3일간 한총련 출범식은 무사히 치뤄졌다.

출범식이 무사히 치뤄진 데는 물론 조선대 학생들의 '출범식 사수'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뒷편에는 남 모르게 일해온 직원들의 도움도 컸다. 광주도청에서는 출범식을 무마하려고 협안이 돼 학교당국도 반대의 입장을 표시했을 때 직원들은 자진해서 지난 5월 3일(화) 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출범식을 밀어주기로 결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여러 활동을 벌여왔다.

비대위 위원장 학생처 소속 한상록(43세) 씨는 "우리는 학교 · 정부와 학생측의 중개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는 누가 보아도 옳은 일인데 중개인으로서 옳은 일은 당연히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이번 활동은 학교의 중요한 행사로서 직원들이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주장한다. 직원들은 이번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마침으써 조선대에 대한 사람들의 나쁜 시각을 바꾸고 참가한 타대학 학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활동에 나섰다고 한다. 실제로 이번 출범식에서 직원들의 활동은 출범식의 원활한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학교당국은 출범식을 막기위해 사전에 많은 압력을 넣었으나 직원들은 두번이나 면담을 신청하는등 학교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준비 때도 목수와 전기기사 등이 직접 나서 일을 돕고 각종 복잡한 절차상의 일은 직접 맡아 처리해 주었다고 한다. 출범식 때도 행사장 곳곳에 직원들을 배치해 학생희측과 같이 활동하며 출범식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학교 양호실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이동보건소에 배치돼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사고를 당하는 학생들이 없이 행사가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고 마지막 날에도 경찰과 큰 충돌이 없었으면 합니다"라며 활동의 의의를 밝혔다.

한상록씨는 "우리 학교같이 학사행정이 잘 진행되는 곳은 없는데 그 이유는 '공개예산'같이 학원주체 모두가 공유하고 감시하는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자랑한다. 이렇듯 조선대는 87년 학원자주화 투쟁이후 학생 · 직원 · 교수들이 모두 학원자주화 투쟁에 일체감을 가지고 참여해 왔는데 이로써 모범적인 민족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출범식 비대위 활동도 이러한 학원자주화를 향한 학원제주최들의 연대감에서 나온 크나큰 성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수미 기자>

기자의 눈

시민과 하나된 폭력(?)집단

"학생들이 전국에서 내려 왔단다. 가서 박수라도 쳐 줘야제"라며 한 젊은 아저씨는 머뭇거리는 부인을 이끌고 조선대 정문을 들어선다.

28일(토) 에는 주말이라서 그런지 수천여명의 시민들이 조선대를 찾아와 출범식을 함께 하였다.

5만여명의 학생들이 반으로 갈리고 그 사이로 수십개의 깃발과 꽃화가 단상으로 들어서는 조국통일위원회의 출범식을 지켜보던 최인기(35 · 상업)씨는 "학생들의 행사가 이렇게 웅장하고 성대하게 치루어지는 줄은 생각도 못했당께.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더만 이많은 학생들이 다 간첩이란 말이여"라며 학생들의 라이타 구호에 즐거워 했다.

한총련 출범식이 있기 십여일전부터 각종 일간지에서는 "광주시민 담담하다" "한총련 출범식으로 광주시민 긴장"이라는 제목들로 한총련 관련기사가 연일 보도 되었다.

실제로 25일(화) 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범식 개최 철회하라"며 가두시위를 했다는 것이 전국에 보도되었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김일순(65) 할아버지는 "우리들이야 출범식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게 사실이여. 헌디 관에서 사람들이 나와 점심값과 술값을 줄시롱 거리에 나가 몇마디 외치고 오라기에 그냥 해본 것이여"라며 그 당시 정황을 밝혔다.

'폭력집단 한총련'이라는 뉴스보도에 궁금해서 출범식 자리에 나왔다는 한 시민은 "학생들이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에서 폭력성같은 것은 보이질 않어. 다들 집에 가면 귀여운 자식새끼들인디"라며 오히려 경찰의 폭력진압을 걱정하였다.

출범식 마지막 날 29일(일) 에는 '시민 · 학생 한마당'이 열렸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도청으로 가는 길에 시민들은 곳곳에서 물을 떠다주었고 상점에서는 아이스크림, 음료수등을 던져주었다. 이에 도심을 가득메운 5만의 학생들은 과도타기, 집단가무를 통해 화답했다.

한 학생은 "출범식을 반대하고 있다던 광주시민들은 아니고 골목골목마다 물을 가지고 나와 격려해주고 박수쳐주는 모습에서 역시 광주구나"라고 소감을 밝혔다. 도청집회에서는 언론의 왜곡보도에도 시민 2만여명이 모여 7만여명의 학생 · 시민이 하나가 되어 정부의 집요한 탄압을 무슬게 만들었다.

<김인옥 기자>

□ 농어촌발전위원회 활동보고 평가 정리

시작부터 한계 · 결과는 미흡 구조적 농정개혁 노력 필요

UR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사상 최대의 농업 · 농촌 · 농민위기를 맞아 전 농민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우리농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농업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들이 시위 일변도로 나가며, 현 정권의 반대로 나갈 위험성에 정부는 농어촌발전위원회(농발위)를 결성하였다.

지난 25일(수) 농발위는 반년동안의 논의를 통해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지역에서의 2 · 3차 산업 개발, 농촌의 복지향상 3가지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엔 미흡한 것이었다.

지난 26일(목) 오후 2시 농업기술진흥관 대강당에서는 그동안의 농발위 활동과 최종보고서 평가를 통해 앞으로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발위 활동보고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에는 윤정석 전국농민총연맹(전농) 의장을 비롯, 한국농업여구회등 농발위에 참가했던 제농민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활동보고에서 박덕영(한국농업연구회 회장) 씨는 "농발위 지체가 UR문제를 희석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부터 많은 갈등이 야기됐다"라며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하나라도 더 관철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활동의 의의를 밝혔다.

정성현 우리밀지키기 본부장은 "농발위 구성 지체에서부터 한계가 있었다"며 성과가 크지 못했던 것은 "농발위는 농업문제에 대한 모든 계층 의견을 담는다는 명분으로 30명으로 구성했는데 농업의 발전에 초보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고 오직 자기가 속한 부처의 이해만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농발위는 만든 취지에서부터 여러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어 한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장원석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국본) 집행위원장은 보고서 평가에서 "UR극복을 위한 농업의 미래상이 없고 단지 기존의 신농정에서 제시했던 상업농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의 축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라며 "농민적인 시각이 아니다"라고 보고서 성격을 일축했다. 실제로 보고서가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농간 균형개발' 등 비농민에 의한 농어촌 발전에 중심을 두었다는 점과 대안 부재 등 내용이 전반적으로 애매모호한 미사여구로 꾸며져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논의의 초점이 현안문제인 UR협상에 대한 대처방안이 아닌 이후 극복방안이었다는 점인데 수출입 검역제도 등 수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농지제도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내용이 정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농발위 활동의 극복과 UR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됐는데 앞으로의 사업은 UR협상 대처라는 어려운 과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인만큼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사람들의 자세와 농민층의 지식 부족이라는 내부적 문제점의 인지하에 활동이 전개돼야 함을 강조했다.

농발위와 관련, 이후 활동으로 농발위 시한을 향후 몇년간으로 더 연장시켜 근본 구조적인 농정개혁과 기타 농촌복지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정부를 감시하는 기구를 통해 보고서의 내용이 제도화돼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마지막 순서로 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어업후원자 중앙협회, 전국농민총연맹, 여성농민총연맹 4개단체로 구성된 '농정개혁 감사단 추진위원회'(사무총장 농업기술협의회 김시약씨)를 결성하고 건성식을 가졌다.

<사회부>

외대만평

대학생 하계연수

풍요로운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꿈입니다.
1924년 창업이래 70여년을 인간존중의 삼양문화를 바탕으로
보다 풍요로운 사회건설에 한 몫을 담당해 온
우리 6천여 삼양가족 모두는
보다 밝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 여러분들과
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마련하게 된 하계연수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삼양

장립 70주년 1924 1994

구 분	하계연수과정	어학연수과정
①연수기간	1994. 7. 18(월)~7. 23(토) 1주간	1994. 7. 1(금)~7. 30(토) 주 4일(월, 화, 목, 금)강의
②모집인원	40명	30명(15명씩 2 class 운영)
③응모자격	4년제 정규대학 재학중인 2, 3, 4학년 대학생	4년제 정규대학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서울지역 거주자
④선발방법	서류심사	어학수준테스트 (테스트 일정 및 장소 : 지원서 접수시 안내)
⑤프로그램 내용	• 삼양그룹 소개 • 공장견학 • 팀별 사례연구 및 발표 • 교양강좌 • 일체감 조성훈련 • 비지니스 게임 • 명승지 관광 • 단합대회 등	• 외국인 강사 초빙하여 영어회화 중심으로 어학강좌. 어학수준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편성(고급반/중급반) AM 09 : 30~10 : 20, 10 : 30~11 : 50 • 공장견학, 명승지 관광, 단합대회 등
⑥접수기간	1994. 6. 20(월)~6. 28(화) 평일은 17 : 00, 토요일은 12 : 00까지	1994. 6. 1(수)~6. 10(금) 평일은 17 : 00, 토요일은 12 : 00까지
⑦합격자발표	지원서 접수시 안내	지원서 접수시 안내
⑧지원서배부 및 접수처	본사 인사부 인사과(성적증명서 1부 및 반명함판 사진1매 첨부,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	본사 인사부 인사과(학생증 사본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첨부,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
⑨기 타	•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참가 답례금과 고급기념품 지급 • 연수 참가비는 없음	• 출석상 및 우수수료상 시상 • 수료자 전원에게 고급기념품 지급 • 연수 참가비는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 인사과로 문의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종로 5가 지하철역 하차, 삼양빌딩) 우편번호 : 110-725
TEL. 740-7155, 7156

● 주식회사삼양사(化纖, 식품, 사료, 化成, 환경사업) ● 삼양중기주식회사 ● 선일포도당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화성주식회사 ● 신한제분주식회사 ● 전북투자금융주식회사 ● 주식회사 삼양메디케어 ● 디완 살만 파이버 ● 삼양그룹중앙연구소 ● 삼양그룹의약연구소 ● 삼양그룹선일연구소 ● 양영회 ● 수당장학회

자명종

외대! 실추된 명예 되찾을 때

조규철
<불어과 56, 본교 교수>

우리대학교가 1954년에 개교하여 1980년까지는 한국에서 5대 명문대학으로 꼽힐 정도로 급성장하였으나 198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함에 따라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과거에 확보한 명성과 우수한 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추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 우리의 당면 과제는 우리 대학교의 질을 높이고 실추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 일치 단결하여 학교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 이기주의도 배격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외대의 중흥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교는 앞으로 다가올 교육개혁에 대비하고, 대학과 대학원의 개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중대한 시점을 맞이했다. 대학이 대외적으로 개방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학이 바로 우리 대학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외대인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교수님들의 지성과 전공분야를 학교발전에 참여시켜 독특한 명문대학(Unique and University)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학교 발전을 위해 일련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서울캠퍼스와 용인캠퍼스를 균형있게 특화발전 시켜야 한다. 또한 서울캠퍼스의 협소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부속 기관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강구해야 한다. 우선 자곡동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도록 총력을 기울여 그 곳으로 국제교육원, 외국어 연수원, 통역대학원, 외국어 관련 연구소 등의 이전을 연구해야 한다. 이문제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을 국제화 시대에 알맞게 대폭적으로 개편하고 교육방법도 획단시대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여 교육을 심화시켜야 한다. 일부대학을 개편하고 과대한 인원수의 학과정원을 재조정하여 외대 특성에 맞는 비교우위의 학과를 신설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취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취업 담당 부서를 강화시키고 취업대책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해야 한다. 취업을 돕고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영어교육을 필수 외국어로 하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에 용인캠퍼스 도헌학사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면 효과적일 것이다.

우수한 교수를 유치하고 우수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수님의 연구의욕과 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이기 위해 일련의 노력을 해야 하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시설도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외에도 학교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발전기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모든 외대 구성원들이 동문과 학부모, 재계 등 각계 각층에서 많은 발전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외대발전과 중흥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각자 기능을 상호보완하여 공동체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중지와 힘을 모으면 우리 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고침>

지난 630호 '자명종' 칼럼의 필자의 직급을 사무주임에서 사무직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야밤에 집에가는 방법

○…집에는 가야 하는데 타고 갈 차가 없습니다. 이때 당신은? (단 학교가 제2캠퍼스)

1. 지나가는 차 잡아탄다.
2. 걸어서 집까지
3. 잔디위에서 잔다.
4. 기타

선택 1→지난 모여대생 윤간당함

선택 2→후시 축지법이라도 쓰렵니까?

선택 3→당신은 강심장?

선택 4→나라면 교통대책 세워 기필코 집에감(학교측 학생사랑 필요)

○…대한민국은 비밀이 많아 입만 방긋해도 '국가기밀누설죄'로 걸려든다는 정부 관계에 민초들 다같이 합죽이가 돼

지옥의 목시록을 방불케 한다는데.

방북작가 황석영씨가 북한 주민에게 남쪽에선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말해 유죄판결을 받은것이 그 원인.

정부나리! 국회의원도 모르는 U·R이행서를 미국에 바치는것은 우방에 대한 우정이고 만천하가 아는 상식을 북한에 말하면 유죄라는 법은 민족에 대한 위법임을 잊지 마시압.

○…'협의'냐 '수렴'이냐, '~한다'냐 '~하도록 노력한다'냐 라는 문구로 학교당국이 졸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사연인즉 식대인상저지와 관련 이문벌교정에서 열린 협상 중 문구하나로 서로 티격태격.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데 필 이런 걸로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크로니클자 말 뿐인 '양치기 소년'의 신뢰가 아니길 고대함.

○…우리는 종종 우리자신 또는 학교발전을 위해 제 한몸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문캠퍼스 오월 대동제 기간 중 학생회관 주변엔 27대 총학생회장 이철훈군의 수배해제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이 마련돼 이문졸산들의 심금을 울려.

외대발전무광의 덕(?)으로 수배와 갖은 고난을 겪고 있는 철훈군의 얼굴에 부끄럽지 않도록 졸산들은 일신우일신해야 할것.

○…'키 1백62~67㎝, 몸무게 50㎏이하, 용모에 중점을 두어 면접할 예정'은 슬림 호스티스를 뽑기 위함인가 근무할 여성직원을 뽑기 위함인가?

사원채용 때조차 적용되는 성차별에 여성민초들은 조홍은행을 비롯한 44개 기업체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고발했다는데 보소. '가슴달린 남자'가 괜히 나온줄 아소.

가슴 달린남자 존재이유

□ 생사(生死)의 갈림길에 선 외대! 그 발전 전망을 모색한다<4> 지역학-②

지역학 무용론, 반시대적 인식

미국의 지역학 프로그램은 전공지역의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진은 지역학 분야가 발전했다고 평가되는 미 버클리 대학.

본교 교과과정, 어문학 강좌로 일색

미·일 등지의 대학, 외국어·지역학의 적절한 조화

이 글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지역연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인 버클리대학과 동경외대의 예를 중심으로 지역학을 지향해야할 본교의 교과과정상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미국의 지역학 교과과정의 예

미국 대학에서의 지역학은 대개 특정한 과(department) 단위로 구분되어 진행되기 보다는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 계열 학과의 다양한 과목이 포함된 일정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지역학 과정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수강과목의 선정, 안내, 그리고 학위수여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에서의 학과(學科)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역학 프로그램의 운용은 대학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보인다. 그것은 첫째, 관심대상 지역의 언어에 대한 강조이다. 미국 대학의 지역학 프로그램은 거의 예외없이 본격적인 지역학 과목의 수강 이전에 해당 지역의 언어과목을 1년 이상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계속적인 언어구사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지역학 프로그램은 전공 지역의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선정함으로써 역사를 지역학 연구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세째, 혼히 지역학의 방법으로 언급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의 강조이다. 지역학 과정이 하나의 학과로 설치되기 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학과에 개설된 지역관련 과목과 연구방법론 과목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용되는 것도 학제간 연구의 중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대학의 위와 같은 지역학 과정은 적절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역학 분야가 발전한 대학의 하나로 평가되는 버클리대(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아시아 지역연구 과정의 경우, 전공영역은 중국, 일본, 남동아시아 등으로 다시 지역별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소지역별 전공과목과 프로그램 공통과목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고 있다. 소지역별 전공과목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인류학, 역사, 예술사, 경제, 정치, 사회학 과목 등과 같이 학제간 연구의 특성을 부각시킨 체제로 편성되어있다. 공통과목으로는 불교와 현대사회, 동아시아 경제성장론, 동북아시아 정치론, 비교농촌사회론, 아시아와 미국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아시아 지역연구로 학위를 받으려는 학생은 전공할 지역의 언어 과목을 1년 이상 수강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지역학 과목의 학사관리를 전담하는 아시아 연구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총 이수학점 36학점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최소 2개학과 이상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되, 최소 12학점 이상은 비(非) 어문계 학과에서 이수하고, 이론과 방법론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학 교과과정의 예

동경 외국어대학의 경우 외국어학부에 14개의 외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들 학부에 개설된 수업과목은 일반교육과목 외국어과목, 보건체육과목,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으로 나뉘며, 수업년한은 전기 2년과 후기 2년을 합친 4년이다. 그리고 각학과에서는 전문교육과목을 전공어학과목 및 전수(專修) 과목으로 분리하고 있다.

졸업을 위해서는 일반교육과목에서 36학점, 외국어과목에서 한 개의 외국어를 8학점, 보건체육과목에서 강의 및 실습 4학점, 전문교육과목에서 어문학전수과정의 경우 전공어학과목 64학점, 전수과목 20학점, 졸업논문 8학점을, 국제관계전수과정의 경우는 전공어학과목 56학점, 전수과목 28학점, 졸업논문 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각학과의 후기 2년동안에 학생들은 어문학전수과정 또는 국제관계전수과정 중 한 쪽을 선택해서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과정을 보면 일반교육과목은 인문(철학, 교육학, 문학, 언어학, 역사학, 지리학), 사회(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지연(자연과학개론, 수학, 심리학, 인류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교육과목에는 커뮤니케이션론, 비교정치학, 인류언어학, 사회사상사, 국제관계개론, 국제법개론, 세계경제론 등이 있다. 외국어과목은 영어, 불어, 독일어, 노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4개지역의 모든 외국어학과에 해당지역의 지역사정과 지역개론(지역사, 지역역사와 문화, 지역사회와 문화, 지역연구입문) 강좌를 개설하여 전기과정에서 4학점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전수과목의 경우 지역학강좌가 돋보이는데, 언어학개론 4강좌, 음성학 6강좌, 문학 3강좌, 철학 7강좌, 사학·지리학 6강좌, 사회학 6강좌, 정치학 3강좌, 법률학 7강좌, 경제·경영학 11강좌, 지역연구 1, 2, 3, 4, 5강좌로 세분화되어 있다.

외대의 문제점

본교 동·서양어대학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분야별(교양필수 및 선택, 전공의 계열기초, 필수 및 선택, 부전공 및 자유선택) 이수학점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단과대학별, 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커리큘럼의 편차가 너무 커서 해당지역의 어학을 바탕으로 지역연구를 하겠다는 외대의 교육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외대일람을 펼쳐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영·불·독어과를 비롯한 서양어대학의 경우 전공과목은 물론 계열기초 과목에서도 어문학 일색의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서 본교의 이념인 지역학의 이해라는 부분이 실종되어 있다. 동양어대학의 경우 서양어대학에 비해 지역학관련 강좌가 다소 눈에 띄지만 여전히 어문학 강좌에 대한 지역학강좌의 비율이 15%전후에 불과해서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학관련 강좌가 개설되어도 동·서양어대학을 불문하고 그 강좌에 부적합한 교수가 강의를 담당함으로써 강좌설치의 목적에 배치되는 현상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문화사나 사상사등의 강의를 비전공자가 강의하는 등의 예가 그러하다.

동양어대학의 계열기초 강좌의 경우는 개설되는 강좌는 지역학에 부합되지만 보다 다양화·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학년별로는 1~2학년 교과과정에서는 해당지역의 어학과 지역사정, 지역개론과 관련한 강좌를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3~4학년 교과정에서 지역학 강좌를 50%이상 개설함으로써 분출하는 지역학의 요구를 소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지역학과가 설치된 게명대, 배재대, 한림대 등과 같은 국내 대학들의 경우, 대다수의 학과가 1~2학년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어학습득을 위주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학 관련 과목은 2학년 과정부터 역사 또는 지역개론을 중심으로 개설되고 있다. 이들 지역학과의 교과목은 3~4학년 과정에서 보다 세분화되어 지역학 계열과목이 대체로 어문학 관련 전공선택 과목과 비교하여 6:3 또는 7:3의 정도의 비율로 편성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지역학 무용론은 반시대적 인식이다. 학과의 명칭이 '어학과'이기 때문에 지역학관련 강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말은 '어학과'에서는 문학강좌를 필수시는 안되며, 외국어대에는 '어학과 이외의 과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현상과 이상의 괴리는 이상지향을 통해 메꿔야하며, 지역연구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본교에 들어맞는 지역학 교과과정이 완성형에 이르기까지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본교에 지역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학부의 개념을 우리와 달리하는 미국의 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 명실공히 학과명칭은 물론 교과과정도 지역학체제로 운영되어야할 외대의 경우 학과명칭이 여전히 '어학과'로 남아있는 동경외대의 모델을 입시방편적인 차선책으로 참고할 필요도 있다. <대학부>

비둘기 칠판

왕산골

■기회의 문을 다시 엽니다

기록문학회에서 94새내기 추가모집 합니다.

원서배부 때 : 6월10일(수)~3일(금)

시험날짜 : 6월7일

<기록문학회>

■총총총 뛰어 오세요

외비가디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 때 : 6월3일(금) 늦은 6시
- 곳 : 동아리방

<외비가디>

■찾아 주세요.

지난 25일 동대문에서 연락 왔어요.

5천원이 든 검정지갑

연락 : 961-8518

■초대합니다.

열린 그림전에 오친왕산인 모두를 수용할 자신 있습니다.
- 때 : 5월30일(월)~6월3일(금)
- 곳 : 학생회관 전시실

<그림사랑>

■수화 배워보실래요?

수화 기초반 수료식 및 발표제가 있습니다.
- 때 : 6월9일(목) 늦은5시30분
- 곳 : 교양관 201호

<손말 사랑회>

■동문회

<배재>

재외대 배재인들은 들어라 모이니까 모여라
- 때 : 6월2일 늦은 5시30분
- 곳 : 대운동장

■휴식을 취하세요.

(Master-Piece)

M·P 가족 여러분 정기 감상회가 있습니다.
- 때 : 매주 목요일 늦은 5시30분
- 곳 : 학생회관 404호

<M·P>

■축하합니다.

희정이의 스물 하고도 두번째 생일을 놀림과 함께 크게 축하한다. 만수무강!

<단짝 승>

제2회 한충련 출범식을 축하합니다.

모두들 수고했어요.

<애국 외대인>

승재오빠 스무살 생일 축하해요. 장미꽃보다 향수보다 큰 사랑을 드립니다.

<귀여운 후배 민>

이문벌

■아리랑 Ⅱ

외대 연극회에서 제20회 Work-Shop공연합니다.
- 때 : 6월2일(목) 늦은 6시
  6월3일(금)~4일(토) 늦은 3시·6시
- 곳 : 한국 외국어대학교 대강당
- 주최 : 외대 연극회
- 후원 : 제28대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외대 연극회>

■새가족을 기다려요

영화 연구회 '올림'이 새식구를 찾습니다.
- 때 : 5월3일(일) 늦은 5시
- 곳 : 학생회관 4층
- 문의 : 961-4544

<올림>

■들으러 오세요.

해외배낭·유학·연수에 관련있는 사람은 상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 때 : 매주 토요일 늦은 2시
- 곳 : 시청앞 금정
- 문의 : 755-5588

<떠돌이 비둘기>

■동문회

<문일·동일>

형제들아 모여라 얼굴 좀 보자.
- 때 : 6월8일(금) 늦은5시30분
- 곳 : 도서관 앞

<영동고>

영동교가 아닙니다. 영동고입니다. 영동고는 누구든지 환영!
- 때 : 6월3일(금) 늦은5시
- 곳 : 도서관 1층 로비

<수피아·석산고>

빛고을의 찬란한 별이 모입니다.
- 때 : 6월3일(금) 늦은6시
- 곳 : 잼통

은희가 수피아 최임지고 제후이는 석산 최임지라

-달리는 오토바이에 부딪혀도 끄떡없는 불패의 애국 동문회-

세민전 성황리 개막

31일부터 이틀간 교육문화회관 공연

인류평화와 남북화해를 위한 '94 세계민속예술축전이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그동안 예산지급등의 문제로 행사 개최에 있어 어려움을 거듭해온 세민전이 지난 25일(수) 오후 3시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학교측의 전면적인 공식지원으로 원활히 진행됐다.

이날 공연에는 안병만 총장(행정학과), 김민곤 용인캠퍼스 부총장(물리학과) 등의 학내인사와 중국·폴란드 대사관 관계자 등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이번 세민전의 공연에 대해 김민곤 부총장은 "학생들이 정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다"라며 "과별 공연시간이 너무 길어지부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좀더 찔적으로 향상된 연출·기획능력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다음날 26일(목)까지 계속된 이번 공연은 오후 3시와 7시 하루 두차례씩 4회에 걸쳐 진행돼, 지금까지 약 4천여명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내외귀빈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캠퍼스 동문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인류평화의 장', '남북화해의 장', '대동의 장'등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첫번째 인류평화의 장에서는 '비둘기의 아침'이라는 창작곡을 시작으로 세민전 개최 의의와 배경의 내용을 담은 '주제영상', 각 과별 민속춤·노래순으로 진행됐다.

두번째 남북화해의 장에서는 '고향의 봄', '통일 아리랑'이 울려퍼지면서 인류평화를 위한 민족통일 염원을 노래했다. 또한 한국팀의 공연은 얼림굿을 시작으로 4개판으로 진행됐다.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들꽃관은 '임진강 뱃사공'과 민속춤이 선보였고, 통일의 길로 걸어가는 민중의 삶을 내용으로 한 셋째관은 북, 소고춤과 어우러져 진행됐다. 마지막 관에서는 고풀이와 관굿이 진행되면서 통일의 환희를 표현했다.

'인류평화', '조국통일', '하나된 조국', '맞으리 가세'의 글귀가 새겨진 깃발과 전 출연진이 등장해 '세민전 주제가'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공연은 막을 내렸다.

세민전 준비위원회 한국팀은 지난 27일(금) 부터 29일(일)까지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 출범식에 참가, 세민전의 대외홍보를 위한 공연을 벌였다.

한편, 오는 31일(화), 6월 1일(수)에는 공연장소를 서울 교육문화 회관으로 옮겨 하루 2회로(오후 3시, 7시) 총 4회의 공연이 진행된다.

5월 대동제 막내려

다채롭게 진행돼

'빛나는 청춘의 기상' 5월 대동제가 지난 26일(목) 막을 내렸다. △94년도 1학기 투쟁의 정리와 힘다지기 △'외대인의 날'에 대한 각 과의 인식 확대 △각 과를 중심으로 전체 외대인의 하나되는 자리 등을 목표로 삼았던 이번 대동제는 폭우가 내리는 등 갖은 어려움에도 주최측의 노력이 빛나는 자리가 됐다.

대동제 기간동안 노래동아리 '새물결' 정기공연, 민족극패 '울력'의 동학 1백주년 기념공연, 하숙집 아주머니 노래자랑, 상경대 노래패 '맥박' 정기공연, KBS 공개녹화 '기쁜 우리 젊은 날'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26일(목) 폐막제 전에 열린 통일노래 한마당에선 중국어과 노래패 못갖춘 마디가 '통일로 나는 꿈'으로 1등을, 독교과 노래패 세사리와 신방과 노래패 세날이 '하나가 된다면'과 '하나되는 우리'로 각각 2·3등을 차지했다.

이어 열린 폐막선언에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오춘열(정외·행정 4)군은 "식대인상 저지를 비롯한 우리의 단기사안을 기필코 쟁취하자"라며 이번 대동제가 단결과 화합추구만이 아닌 투쟁의 장였음을 밝혔다.

이철훈군 돕기 일일 주점 열려

서울캠퍼스 대동제 기간중 '이철훈 93년도 총학생회장 수배기금 마련 일일주점'이 열렸다.

지난 27대 총학생회 간부중 아직까지 수배가 해제되지 않아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이군과 학생들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이군은 작년 8월경 총학생회 간부 2인과 함께 수배·징계를 받았고, 이에 이어 군 징집 거부로 인해 군 수배자 명단에도 들어 있다.

본교생 구속수감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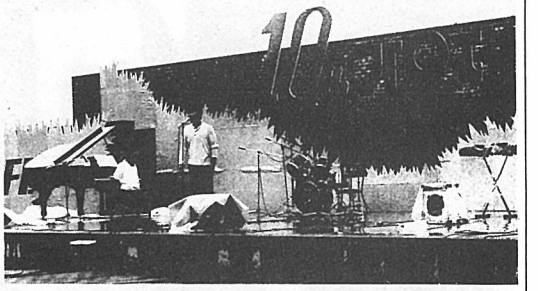
반미 시위도중

지난 22일(일) '수입개방 강요하는 미국을 반대',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아메리칸 센터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던 본교생 이신우(사범·한교 4)군이 연행돼,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서 구속수감 중이다.

이날 시위는 서울지역 동부지구 총학생회연합(동총련, 의장 최종민 건국대 총학생회장) 주최로 본교생 10여명을 비롯한 7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와 관련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사무국장 양봉열(상경·무역 4)군은 "이번 구속은 한총련 출범식으로 이어지는 5월 투쟁국을 미리 탄압하려는 김영삼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구속된 이군에 대해 어떤 신경도 쓰지 않는 학교측은 좀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위에서는 이군을 포함한 동총련 소속 3명의 학생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용인캠퍼스 교육방송국은 지난 24일(화) 비가오는 가운데 'FBS 가요제'를 열었다. 본교생 뿐만아니라 타대학 학생들도 참가한 이날 가요제에는 8백여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개팀이 참가해 경연을 벌였다.

<시진부>

이교충 교수 태국방문예정

재태 동문 초청

본교 이교충 교수는 오는 7월 22일(금) 부터 10여일 동안 태국에 거주하는 동문들 초청으로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재(건)태 본교 태국어과 동문들은 후학양성에 힘써온 교수들을 계속해서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이교수의 방문은 그 사업의 첫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계절학기 실시예정

등록 기간 13~15일

교무처는 이번 하계계절학기를 오는 6월 22일(수) 부터 7월 9일(토) 까지 16일간(토요일 포함)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캠퍼스에서 실시되는 이번 계절학기는 수강인원 30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해서 본교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뿐 아니라 교과과정 이외의 교과목도 신설된다.

수강신청 최대학점은 6학점이내이며 오는 6월 13일(월) 부터 3일간 교무과에 등록하면 된다.

이에 앞서 수강희망과목 조사일은 오늘(31일) 부터 4일간 진행된다.

상대 외국인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서울캠퍼스 상경대는 'Restructuring the corporation'이라는 주제로 지난 25일(수) 대학원 건물 104호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약 1백2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펜실베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William M. Evan교수가 강연해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통역은 조남신(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반미·김정권 타도 매진

제2기 한총련 5만여 참여속 출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제2기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한총련) 출범식이 전남 광주 조선대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5만여명의 시민·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27일(금) 부터 29일(일) 까지 열린 이번 출범식에선 반미·김영삼 타도의 내용과 5월 문제 해결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자주의 시대! 그 길에 빛나는 백만의 영광! 미국반대 김영삼 타도의 자랑찬 성전에서 통일조국 건설로 내달리는 청춘은 승리한다!'라는 기치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엔 본교 서울캠퍼스 2백여명의 학생들과 용인캠퍼스 4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첫날인 27일(금)에 있은 전야제는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서총련) 노래단 '조국과 청춘'등이 출연해 △구국운동의 역사 △일사의 삶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에서 한총련까지의 발전과정 등을 춤과 노래, 극으로 형상화했다.

28일(토)에는 약 30여개 조직으로 나눠져 부문제열별 행사와 제2회 한국대학생 춤 한마당 등 상설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학자추)·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 출범식이 열렸다.

'민족대학 건설'의 기치를 내건 학자추 출범식에서 위원장으로 응립된 본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최진선(인문·사학 4)군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민족대학 건설을 위해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교육제정학보부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자"라며 민족대학 토대 마련을 결의했다.

이어 열린 제2기 한총련 출범식에서는 통일의 노래 '희망새'등이 출연한 축하공연, 중앙상임위원회와 의장 옹립식, 출범선언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제2기 한총련 의장 김현준(부산대 총학생회장)군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민족자주·애국주의 기치아래 반미·김영삼 타도에 매진하자"라고 올해 학생운동의 총지표를 밝혔다.

마지막 날인 29일(일)에는 백만학도 출정식을 갖고 조선대에서 금남로를 거쳐 5월문제 해결 등을 주장하며 평화행진을 벌였고,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문화원과 민주자유당사에 항의방문을 진행한 학생들은 경찰과의 충돌을 우려, 계란 20여개를 던지는 등 약식으로 항의시위를 정리했다. 또한 한총련 출범식 3일간 조선대를 비롯한 광주 전역에 단 한발의 최루탄도 발사되지 않은 평온한 분위기에서 모든 행사가 진행됐다.

이시람

오전부터 비가 쏟아져 잘 치뤄질까 걱정되던 외대 대동제. 하지만 준비하는 학생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외대생뿐만이 아닌 타대학 학생들과 인근주민 사람들, 동네꼬마들까지 노천극장을 메워 비가 막 그친 서늘한 날씨인데도 대동제의 열기는 달아올랐다.

외대생들만의 대동(大同)의 자리가 아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대동제가 돼야한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는 지난 25일(수) 오후 5시 '하숙집 아주머니 노래자랑'을 준비했다.

'떠나간 우리 님이 오신댔어요 소쩍꿍 소쩍꿍~.'

'어머니♪ 어머니♪' 응원을 받으며, 하숙집 아들들인 본교생의 율동과 함께 낭랑 18세를 부르는 아주머니에서부터 밥 많이 먹으라는 낙원식당 아주머니 동생까지, 인근 사람들의 정이 훈훈이 느껴진다. 노래자랑에서 1등은 이문경찰소 옆에서 하숙집을 만 7년간 해온 김동례 아주머니(43세)가 차지했다.

"내가 뭘 친절해. 난 잘해준 것도 없는데 명수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가정적인 분위기가 난다고 하는 걸꺼야." 부박한 말투로 쑥쑥 몰아부치지만 친근한 인상을 주는 김동례 아주머니. 옆에 있던 하숙생들은 "그 집은 작년부터 신방과 하숙생들을 위한 집이라는 뜻에서 '신하사'라고 불렀니다. 그만큼 아주머니가 어머니같은 사랑을 쏟아주세요."라며 김아주머니가 외대생들에게는 인근 하숙집 아주머니의 모범이라고 한다.

"그래도 타항에서 고생하며 공부하는 자식들인데 식구들처럼 대해 줘야지"

<서울 대동제 하숙집 아주머니 노래자랑에서 1등한 김동례(43세) 아주머니를 만나>

늦게 오더라도 짜증보다는 밥먹었냐를 먼저 걱정하는, 밤늦게 술을 마시고 떠들어도 조용히 하기를 바라기 보다는 오히려 안주를 갖다준다는 아주머니의 인심이 신방과 하숙생들이 누구보다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신하사'라 부를 만큼 그 집에 애착을 느끼는 것같다.

"그래도 타항에서 고생하며 공부하는 자식들인데 같은 식구들 같이 대해줘야지."

하숙비도 다른 곳보다 1~2만원 싸게받고 하숙생 친구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해 하숙집으로 데려오면 이불까지 갖다준다는 김동례 아주머니는 공안정국 담시 외대생들의 데모로 학생들만큼 최루탄도 많이 맡았다고 한다. "그땐 짜증나기도 했지만 잡혀가는 학생들을 보며 정말 안타까워 했지. 나도 4·19를 겪어서 학생들의 요구들이 옳바르다는 것을 알거든."

이렇듯 외대생들과 7여년을 함께 하면서 외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말할 수 있다는 김아주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인 아들 용택이가 실력만 된다면 외대에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이수미 기자>

문화단신

서울 FBS가요제 6월1일

서울캠퍼스 외대교육방송국(FBS)이 해마다 개최하는 제15회 외대 가요제가 오는 6월 1일(수)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본교생을 비롯한 경인지역 대학의 노래동아리 약 30여팀이 예선에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인 이번 대회는 지난 21일(토) 예선전을 치루고 최종 8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진출 팀과 참가곡명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 사는 소리(한양대) : 햇살처럼 △피카통(중앙대) : 슬픈 만남 △외대 통기타반 노래노래(본교) : 넘어여 △새날(국민대) : 자주통일의 한판 춤으로 △통계구름(동국대) : 또 다른 마음을 찾아서 △광야(서강대) : 새 길 △새물결(본교) : 소리없는 기도 △김현희(본교 용인캠퍼스) : 이 거리에 △초청가수 : 강산애, 권진원

아인하이트 정기공연

지난 17일(금) 독일어과 노래모임 아인하이트(EINHEIT)는 정기공연을 가졌다. 대강당에서 열린 이 공연에서는 합창에서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동지여 굳세게', '내일이 찾아오면', '오늘같은 밤'등의 노래들이 불려졌다.

새물결 '삶의 향기 품어 날리며'

새물결의 제19회 정기공연 '삶의 향기 품어 날리며'가 지난 23일(월)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5월 대동제 개막공연으로 잔치분위기가 맞물려 1천여명의 관객들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새물결의 최근 창작곡 '사람들', '소리없는 기도'가 선보였고 '무사의 한길', '굽이치는 임진강', '새벽길'등의 노래가 다양한 장르로 편곡되어 불려졌다. 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바람성성'을 아카펠라로 불러 이번 공연의 대중성과 다양한 형식의 단면을 보여줬다.

하얀공간 정기전시회

지난 23일(월) 부터 27일(금)까지 용인캠퍼스 미술동아리 하얀공간이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제26회 정기전시회를 열었유화와 펫생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회는 밝은 분위기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 특히 94학번의 공동작품인 '군상'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장혜경(서학·영어 4)양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도움이 됐다"라며 전시회를 평했다.

목요음악반 공개감상회

서울캠퍼스 동아리 목요음악반이 대동제 기간인 26일(목) 공개 음악감상회를 개최했다.

'세기별 찾아간 서양 고전 음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감상회는 17세기 바로크 음악, 18세기 고전과 음악, 19세기 낭만과 음악의 특징을 각각 소개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빛나는 청춘의 기상 '94 오월 대동제

비속의 열창

맥박 정기공연 '참된봄을 부르며'가 24일(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칠천이 다 모였네

KBS '기쁜 우리 젊은날 녹화장면' 이날 노천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유열동문의 사회아래 영화배우 안성기, 아나운서 정은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권진원 동문이 출연했다.

이렇게 차가울 줄이야

'공포의 물벼락' 게임중 물벼락을 맞은 학생이 물서리를 치고 있다. 4개 공중 3번 명중하면 담배가 한갑이라나.

이문동 하숙집계를 평정하다

상경대 주최 하숙집 아주머니 노래자랑에서 리모, 넋풍기는 소양강처녀를 부른 김동례 아주머니에게 돌아갔다.

어절씨구 우리 젊은날

24일(수) 붉은 광장에서는 상경대와 불어과 중앙으로 호남좌도 굿판이 벌어졌다. 이날 굿판은 고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굿을 선보였다.

□ 영화평 — '시스터 액트 2'를 보고

관객 심리 이용한 '속편'

최근에 들어 비디오 시장, CATV, SATV (위성방송) 등의 등장으로 극장 흥행에서의 실패를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수천만불이 걸린 만큼 제작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그래서 속편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일정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최소한 전편을 본 관객의 관심만은 쏠리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최근 상영된 '시스터 액트 2'(Back in the habit: 제비뜻 남주냐?) 역시 속편이다.

우피 골드버그가 전편에 이어 계속 노래하고 춤추며 낯익다. 참으로 놀라운 세공기술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바로 이 영화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미국인들의 위축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영화의 구도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문제학교는 바로 현재의 미국을 상징한다. 내적으로 병들고 외적으로 위축된 학교, 바로 오늘날의 미국이다.

하지만 구원은 있다. 바로 합창이다. (그 학교는 이전에도 콩쿨에서 여러번 우승한것으로 계까지도 고려해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영화가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관객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는 것은 분명 한 사람의 천재적 영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축적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그들이 세계 영화시장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화면 이쪽에서 저쪽끝까지 철저히 계산된 이 영화를 보고 우리 영화를 '생각해 보았다.

유흥·영상문화 수출을 통한 미국의 경제 지탱 비유

은 조연들의 모습도 계속 볼 수 있다.

하지만, 감독은 교체되었다. 전편은 '더티댄싱'의 에밀 아폴리노였는데 그가 사망함으로써 신에 빌 듀크가 메가폰을 잡게 되었다. 1편과 성격도 약간 다르다. 전편이 '시츄에이션 코미디'에 가까웠다면, 이번 작품은 오히려 뮤지컬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음악적 요소가 훨씬 보강 되었다.

들로리스(우피 골드버그 분)의 상대는 한 문제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학교를 폐교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탐욕스런 재단 이사장이다. 그녀는 전편에서도 그랬듯 합창으로 침체된 학교의 분위기를 살리고 마침내 전미 고등학교의 합창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재단 이사장의 음모를 분쇄하고 학교를 구해낸다.

줄거리는 이와같이 진부하지만, 놀라운 편곡솜씨와 제기님치는 구성으로, 할리우드는 이를 1급의 오락물로 만들어낸다 : 미국의 문화산업 우세와 확치된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유흥 산업, 그 어떤것 보다도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학교는 구출된다. 다시말해 비록 위기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미국 또한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거의 무한 경쟁력을 지닌 문화, 연예 비지니스를 통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는 담론이 이 영화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다.

대체로 관객들은 영화속 상황을 현실과 일체화시키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에 이 그럴싸한 메시지를 실현 가능한 진실로 받아들이며, 마침내 화면속 세계에 더욱 빠져들게 되고 영화관을 나왔을 때는 친구, 가족들에게 '오늘 정말 좋은 영화 보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 관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제 할리우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객들의 의식, 무의식 세

방화의 문제점은 바로 상술된 바와 같은 치밀함의 부족에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제작방식이 주먹구구식의 안이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바로 '루캄스'의 성공이다.

표절시비로 잠음이 일긴 했지만, 이 영화는 정말 보기드문 수작이다. 이 작품의 강점은 오늘날 '요지부동(腰地不動)'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병폐를 정확하게 드러내어 세련되게 희화해 낸 것에 있다 할 것이다. 즉 철두철미한 기획에 그 성공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이다.

프린트벌수 제한규정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등의 외부의 악재를 헤쳐나갈 침병으로써 우수한 한국영화의 더 많은 출현을 바라는 마음 한땀없다.

박 기 현
<정책 · 신방 3>

□서평 — '어린왕자와 장미'를 읽고

쌩떽쥐뻬리는 동성연애 꿈꾼 마마보이(?)

1994년은 생떽쥐뻬리가 사라진 지 꼭 50년째 되는 해이다. 이 50주년 되는 해를 맞이하여 뉴욕에서는 생떽쥐뻬리가 그린 그림 전시회가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여러가지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50프랑짜리 지폐들에 어린 왕자의 그림과 그의 초상화를 넣기도 했다.

이 책은 생떽쥐뻬리의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 일기, 낙서, 심지어 생전에 한 농담 등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 속에 체계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개인적인 상징군을 추출하고 그 속에서 무의식의 흔적을 추적한 것이다.

그의 글 뿐만 아니라 그의 그림(작가가 직접 그린 어린 왕자의 삽화, 편지나 일기, 낙서 속의 그림)까지 분석했다는 점이다. 글을 쓸 때는 문법이나 단어의 제한된 뜻 등으로 벌써 제약을 받고 또 의식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때문에 작가의 무의식을 추적하기가 힘든데 반하여 아무렇게나 직직 긋는 선이나 형태 또 갖가지 색깔로 된 그림 속에서는 작가의 무의식을 훨씬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글과 그림의 비교 분석 연구는 글만의 연구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문학 작가들 중에 헤르만 헤세, 쿼터 그라스, 빅토르 위고, 프란쯔 카프카, 이외수, 조병화 등등의 그림을 그린 작가들이 상당수 있는데도 그 그림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생떽쥐뻬리의 그림 연구를 통하여 글만의 연구로는 잘 밝혀낼 수 없었던 '잠재적 동성연애 경향' 또 전형적인 남성의 상징으로만 알려졌던 그의 '여성적 특성' 또 그의 '어머니에 대한 극도의 사랑으로 인한 금지된 충동' 등을 밝혀냈다. 즉 무심코 지나치기만 했던 '어린왕자'의 그림 분석을 통하여 글의 분석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의 작품은 집, 별, 빛, 섬, 비행기 등등의 수많은 상징과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얼핏보면 이것들이 상당히 난잡하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구성하는 두개의 거대한 축이 기사와 어머니이다. 즉 기사의 신화와 어머니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상징과 이미지들이 수렴, 확산, 교차되는 개인적인 상징군을 형성한다. 기사의 신화로 인하여 자신을 기사로, 비행기를 말로, 폭풍우를 용의 마술로, 현대의 무기를 중세의 무기로, 식탁을 '원탁의 기사'의 테이블로, 나무 막대기를 마법의 지팡이로, 또 여성을 동화속의 공주로 본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세 여성과의 사랑의 실패 원인이 그녀들을 너무나 이상적인 동화속의 공주로 보고 지나친 기대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가 어머니의 품에서 끝내 빠져 나오지 못했던 것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다른 여성에 대한 사랑으로 전이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이미지는 둥글고 잘 보호된 밀폐된 공간에 대한 사랑, 액체 속에서의 유동과 부유에 대한 선호적인 서술, 암흑 속에서의 안정감 등등으로 나타난다.

그가 하늘의 기사인 비행사로서 상공을 날때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약해지지만 비행사가 위험에 빠지거나 실패를 거듭할수록 어머니의 신화가 그를 압도한다. 다분히 의도적인 씩씩가 짙은 그의 실종도 사실은 중세 기사 이상으로 이 세상을 개선시키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고 이상적인 공주를 찾으려 했던 기도도 실패로 돌아가 기사의 존재의미의 상실로 인한 필연적인 모태로의 복귀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죽음이란 종말이나 끝이 아니라 상징적인 모태로의 복귀이기에.

김 희 영
<본교 불어과 교수>

파수대

이런 물맛 아시나요

제2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이 27일(금)에서 29일(일)까지 광주 조선대서 열린 가운데 29일(일)엔 가두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구호를 외치던 학생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나온 식수를 마시는 모습. <사진부>

□시 — 성산포를 다녀와서

그이름 성산포에게 전하는 말

성산포
넌
나를 혼자로 만들었다

또한 이 인생의 방랑자에게
살아있음을 알려준 분인이다
머리를 쥐어잡고
가슴을 내리치고 싶은 고통을
느끼게 해준 분인이기도 하다

코끝까지 시려오는
바다내음을
나에게
전해준다
난
너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해본다
걷다 멈추고 뛰다가 다시 멈춘다
그러다 앉고 다시 일어서서 걷는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로따라

성산포
너로 인하여
이 방랑자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몸바사의 하이얀 백사장도
콜롬보의 짙푸른 바다도
발리의 끝없는 해변가도
페낭의 음율적인 파도소리도
다
너로 인해 사랑하게 되었다

넌
나에게 말해주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비스런 파도의 몸짓
산산이 부서지는 물방울
말끔이 날려보내는 시원한 바람이 있다는 것
바닷가에 가면

바람이 매몰차게 불기 시작했다
파도도 알 수 없는 몸짓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 방랑자의 마음도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오늘 저녁에는
너를 뒤로 하면서
머나먼 바닷가에 계시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졌다
오늘 저녁에는
또 너를 봄과 동시에
그리워지는 인(人)에게 나의 살아숨쉬는 목소리를
전해주어야겠다
성산포로부터 돌아오면

정 공 영
<서양 · 영어 3>

1994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생 모집요강

대학원 (주간) (961-4104, 962-7117)

1. 모집과정 및 학과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6개계열 37개학과) : 각 학과 약간명
어문계열 : 영어과, 불어과, 중국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서반아어과, 일본어과, 아랍어과, 이태리어과, 힌디과, 국어국문학과, 포르투갈어과, 태국어과,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과, 동유럽어문학과, 언어학과
인문계열 : 철학과, 사학과
법정계열 :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신문방송학과
상경계열 : 무역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사회계열 : 아주, 중남미, 중동, 동구, 북미, 아프리카, 서구지역학과
이학계열 : 수학, 물리학, 화학, 전자계산학과
나. 박사학위과정(6개계열 23개학과) : 각 학과 약간명
어문계열 : 영어과, 불어과, 중국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서반아어과, 일본어과, 아랍어과, 국어국문학과, 언어학과
인문계열 : 철학과
법정계열 :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신문방송학과
상경계열 : 무역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사회계열 : 국제관계연구학과
이학계열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2. 원서교부 : 1994년 5월 30일(월)~6월 10일(금)
3. 원서접수 : 1994년 6월 7일(화)~6월 10일(금) 17시까지
4. 시험일시 : 1994년 6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5. 시험과목 : 필답 및 구술시험
가. 석사과정 : 1) 전공 2) 영어(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3) 구술시험
나. 박사과정 : 1) 전공 2) 영어 3) 제2외국어(단, 이학계는 제2외국어 해당없음) 4) 구술시험

무역대학원 (야간) (961-4109, 961-4108)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명
2. 모집학과
가. 경영학석사 — 무역학과, 국제경영학과, 해운경영학과, 정보관리학과, 보험경영학과
나. 경제학석사 — 국제경제학과, 국제지역연구학과
3.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 1) 논문 2) 외국어(23개국어중 택1) 3) 면접
나. 연구과정 — 1) 서류전형 2)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 6월 1일(수)~6월 14일(화)
5. 시험일시 : 1994년 6월 18일(토) 오후 2시부터
* 비 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 지급함.
*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취득자는 해무사 시험에 특전이 있음.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특별무대함.

* 본 대학교 무역,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 바람.
주소 :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철 1호선 휘경역(외대앞)하차>

교육대학원 (야간) 961-4116, 963-6881)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명
2. 전공분야
* 어 문 계 : 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서반아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러시아어교육
* 인문사회계 : 역사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 실 업 계 : 상업교육, 전자계산교육
3. 시험과목 : 1) 필답시험(전공) 2) 면접
4. 원서교부 : 1994년 6월 1일(수)~6월10일(금)
5. 원서접수 : 1994년 6월 7일(화)~6월10일(금)
6. 시험일시 : 1994년 6월 18일(토) 오후2시
7. 특 전
* 현직교사에게는 수료시(5학기)까지 수업료의 25%를 감면함.
* 초 · 중등학교 현직교사, 교장, 교감 및 장학사, 연구사, 교육행정직(5급이상)에 재직중인 자는 입학시험을 거친 후 입학정원의 50%이내에서 특별전형할 수 있음.
* 재학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한국외국어대학교